

# 國語 超分節音의 共時的 研究\*

金 永 萬\*\*

## <차 례>

- |                |                  |
|----------------|------------------|
| 1. 序論 - 理論과 方法 | 4. 咸鏡 方言의 超分節音   |
| 2. 慶北 方言의 超分節音 | 5. 西部諸方言의 超分節音   |
| 3. 慶南 方言의 超分節音 | 6. 結論 - 單語郡과 韻素型 |

## 1. 序 論

### 1.1. 導論

1.1.1. 導入: 현대에 나온 대부분의 國語辭典에는 ‘눈’이라고 표기하는 단어가 짧은 소리와 긴 소리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sup>1)</sup> 짧은 소리의 ‘눈’은 ‘目’의 뜻이고, 긴 소리의 ‘눈’은 ‘雪’의 뜻이다. ‘馬, 斗, 藻’를 뜻하는 ‘말’은 짧고, ‘語’를 뜻하는 ‘말’은 길며; ‘夜’의 뜻의 ‘밤’은 짧고, ‘栗’의 뜻의 ‘밤’은 긴 것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표준어인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방언에 의미를 변별하는 長短(length, duration)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長短에 의한 의미의 변별은 현대 한국어의 다른 방언들에도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다. 平安, 黃海, 京畿, 忠淸, 全羅의 西部 諸方言(濟州 제외)과 東部에서는

\* 이 논문은 1996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수 국내교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영남대 교수

1) 1920년에 나온 《朝鮮語辭典》(朝鮮總督府)에는 긴소리를 가진 음절의 왼쪽에 점을 찍어 표시하였고, 1957년에 완간된 朝鮮語學會(한글학회)의 《큰사전》과 1960년 평양에서 간행된 《조선말사전》에는 긴소리를 해당 음절 글자의 위에 가로 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국어사전은 아니지만, 이들보다 훨씬 전인 1906년에 나온 池錫永의 《字典釋要》에도 漢字音이나 固有語를 막론하고 긴 소리는 모두 글자 右上에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慶北 방언<sup>2)</sup>에서 모두 長短이 변별적이다.<sup>3)</sup>

그런가 하면, 高低(pitch)가 변별적인 방언도 있다. 東部 諸方言, 즉 慶南, 慶北, 江原 東部, 咸鏡 方言에서는 ‘말’이라는 分節音(segmental phoneme)을 가진 단어는 高低에 따라 ‘斗’나, ‘馬’나, 또는 ‘語’나가 변별된다.<sup>4)</sup>

강세 액센트 현상은 일부 지방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sup>5)</sup>,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 다만, 뒤에 살필 超分節素(suprasegmental)의 자질(feature)의 일부분으로서의 強弱(stress)은 경상도 방언을 비롯한 방언들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現代國語의 각 방언에는 子音, 母音과 같은 分節音 외에도 長短, 高低와 같은 요소 즉 超分節素(超分節音素)가 뜻의 分化에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慶北 方言에는 長短과 高低가 공존하는 것은 特記할 만하다.

한편, 中世國語 文獻에서는 글자(한글 표기)의 왼편에 ‘0점, 1점, 2점’의 세 가지 點(聲點, 傍點)으로 超分節素를 표시하였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 각 방언에 있는 長短과 高低 등은 중세국어의 세 가지 超分節素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1.1.2. 목적과 기존연구 상황: 本稿에서는 현대국어 各方言의 超分節音을 공식적으로 비교 기술함으로써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를 밝혀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현대국어 각 방언 음운의 이해에 필요할 뿐 아니라, 나아가 중세국어 음운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방면에 대해서는 많은 量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필자 또한 이 문제를 몇 번 다루어 온 바 있다. 그리하여 국어 超分節音의 연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윤곽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경상도 방언이나 함경도 방언에 대하여 이것이 성조 언어에 속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라든가; 경상도 방언에 있는 초분절소의 자질 규정이라든가 하는 문제

2) 여기에는 주변의 蔚山, 居昌(慶南)과 三陟(江原)도 포함된다.

3) 1990년대인 현재로 보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 방언에서, 이 장단도 상당히 문란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바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충청, 전라, 경북 방언은 아직도 장단의 구별은 완강하다.

4) 어느 쪽이 높고 어느 쪽이 낮으냐는 방언에 따라 다르다. 즉 江陵을 중심으로 하여 南쪽(慶南, 慶北, 江原 東南)에서는 ‘斗’의 ‘말’은 낮고, ‘馬’의 ‘말’은 높은 데 비해; 北쪽(咸鏡, 江原 東北)에서는 반대로 ‘斗, 藻’의 ‘말’은 높고, ‘馬’의 ‘말’은 낮다.

5) 李崇寧(1959), 李炫馥(1973, 1974).

가 학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론과 관찰·분석의 두 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기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언어학에서 음운론의 이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말의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초분절음의 기술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自立分節音韻論은 현대국어의 경상도 방언의 고저 장단의 기술에서 ‘새(間)’, ‘무(講)’의 초분절소를 기술하는 데서 하나의 音節에 두 개의 초분절소가 없이는 현상을 기술하는 데 아주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서이(三), 너이(四)’와 같이 두 음절에 하나의 超分節素가 없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아주 좋은 암시를 주었다(金永萬 1991 : 36-37).

그러나, 외국의 이론을 기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우리말의 언어 현상을 오히려 왜곡해 버리는 일도 많다.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은 대개 어느 한 언어를 관찰·분석한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우리말이 그 언어와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을 깊이 따져 볼 겨를도 없이 피상적인 관찰과 직관적인 생각만으로 그 이론을 적용하려 할 때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온다. 예컨대, 長短의 경우를 보면, 印歐語를 비롯한 대부분의 言語에서는 長音은 單語 내의 어느 음절에나 올 수 있으나, 우리말의 경우에는 첫 음절에만 올 수 있다. 高低의 경우도 대부분의 아프리카 言語들이나 漢藏系 言語들에서는 어느 音節에, 어느 聲調가 오느냐 하는 데 제한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말에서는 여기에도 制限이 있다는 것은 차차 밝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印歐語의 장단을 다루는 방법과 아프리카 諸言語에서 고저를 다루는 방법을 우리말에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1.2.2 참조). 따라서, 우리말 각 방언의 超分節音을 다룰 때는 다른 언어의 예를 충분히 참고하고 외국의 이론을 많이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말의 특수성을 충분히 알고 그에 맞는 방법이나 이론을 찾고, 없을 때는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찰과 분석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음운의 연구에는 정확한 음성적 관찰과 합리적인 음운론적 분류가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이 방면의 논문들을 볼 때 경상도의 초분절음에 대해서는 許雄(1955) 이후로는 독자적인 관찰은 드물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許雄(1955)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許雄(1955)에서 경남 방언의 성조에서 高, 中, 低의 세 기저 韻素(聲調素)를 세우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다음절어에서는 어느 음절의 韻素가 기저는 무엇이며, 음성적으로는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정확한 관찰과 정당한 음운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다음의 예를 보자.

경상도 방언에서 다음절어의 고저에 관해서는 매우 엇갈리는 견해가 많았다. 예컨대 '미나리아재비(毛茛, buttercup)'라는 단어의 각 음절의 높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相異한 견해<sup>6)</sup>가 있다.

※ 경상도 방언 '미나리아재비'의 초분절음에 대한 諸家의 견해차

	미	나	리	아	재	비
a.	低	低	低	低	高	低
b.	低	低	低	低	低	低
b.	中	中	中	中	高	中
c.	中	高	高	高	高	中

여기서 제1음절을 中 또는 低로 보고, 제5음절을 高로 보는 데는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제2음절부터 제4음절까지에 대해서는 a는 低로, b는 中으로, c는 高로 보아 극단적인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7)</sup> 특히 b의 경우는 모든 음절을 다 低로 보는 것이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높이의 측정이 필요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경우 제1음절이 가장 낮고 그 다음부터 차차로 높아 가서 제5음절이 가장 높아졌다가, 마지막 제6음절은 다시 낮아진다. 만약 높이의 정도만을 가지고 숫자로 나타내어 첫 음절을 '1度'라고 하면 제5음절은 '5度'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 중간은 '2, 3, 4度'로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즉,

미	나	리	아	재	비
1	2	3	4	5	1

- 6) 직접 이 단어를 다룬 논문은 없으나, 연구자들의 기술 체계를 볼 때, a는 鄭然燊, 李東華 등의 견해, b는 논문으로는 나오지 않았으나 어떤 논문의 중간 발표에서 '긴 어절에서는 성조가 소멸된다'는 뜻으로 예를 든 것이며, c는 a를 3성조 체계로 환산한 것이며, d는 許維, 金次均의 견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 7) 여기서 a와 b는 이 방언에서 高, 低의 두 가지만을 인정하는 입장인데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경북 방언을 중심으로 보는 경우로서, 경북 방언에는 '꽃'類는 高, '풀'類는 低로서 이 두 가지만 있는데 비해, 경남 방언에서는 '꽃'類는 高, '풀'類는 中이고 '별'類는 低이다. 慶北의 경우는 慶南의 '低'와 같은 낮은 소리가 없으므로 경북의 低는 경남의 中과 같은 것이다. 둘째로는 경남 방언에도 低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예, 鄭然燊), 이 경우도 低는 c, d의 中과 같다. 따라서 a, b의 低는 c, d의 中과 같다고 보면 된다.

필자가 관찰한 저리한 미세한 음성적 차이가 정확하다는 것은 a, b, c, d의 상이한 견해 차이 자체가 옹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가령 c와 d를 비교하면, c가 中이라고 한 제2, 3, 4음절을 d는 高라고 한 것을 보면, 이들 음절의 높이가 그들이 다 같이 中이라고 본 제1음절 /미/(1度)와, 그들이 다 같이 高라고 본 제5음절의 /비/(5度)의 중간(2, 3, 4度)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의 경우는 c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의 경우를 보면 여섯 개 음절이 모두 低라고 하여 高低의 차이를 감지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제1음절부터 제5음절까지 단계적으로 높아 갔기 때문에 이웃한 음절끼리의 차이가 극히 미세하여 이를 감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만약에 低와 高라는 극단으로 대립되는 차이였다면 누구나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높이는 적어도 음성학적으로는 ‘中’과 ‘高’, 또는 ‘低’와 ‘高’의 두 가지로 나타낼 수는 없다. 물론 a~d의 견해는 음성학적인 것은 아니고, 음운론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中과 高의 어느 한 가지로 보아야 하는 것 자체는 맞할 것이 없다. 문제는 같은 소리를 가지고 논자에 따라 中(低)과 高로 엇갈린다는 것이다.<sup>8)</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우리말 각 방언의 초분절음의 실상을 되도록 정밀하게 관찰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분석, 기술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외국의 이론을 충실하게 배우는 한편, 필자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기술 방법을 찾아 내어 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 1.2. 超分節音의 이론과 방법

1.2.1. 超分節音·韻素: 이 논문에서 다룰 長短, 高低 또는 強弱 등은 영어로 ‘suprasegmental’ 또는 ‘suprasegmental phoneme’이라고 하는 용어로 포괄될 수 있다. 이 용어는, 前者는 ‘超分節素’로, 후자는 ‘超分節音素’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그 속意指하는 바는 차이가 없다. ‘suprasegmental’은 표면상으로 ‘phoneme’이라는 명사가 없이 형용사로 끝난 꼴이지만, ‘nasal, labial’이 ‘nasal sound, labial sound’가 줄어든 것으로 ‘鼻音, 脣音’으로 번역되듯이, ‘suprasegmental’도 ‘suprasegmental phoneme’의 略으로 보아 ‘超分節音素’로 번역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超分節素’와 ‘超分節音素’는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音素’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汎稱으로 사용할 때는 ‘超分節音’이라는 표현을 쓸 것이다.

8) 여기 대한 해결책은 뒤에 자세히 논하겠다.

長短, 高低, 強弱 등은 또한 韻律(prosody), 韻素(prosodeme)라는 개념에도 포괄되므로 이 계통의 용어를 써도 좋을 것이다. 다만, 최근에 나온 “韻律音韻論(prosodic phonology)”라든지, “律格音韻論(metrical phonology)”과 같은 용어들과의 혼동이 우려되어 “超分節-” 계통을 택하였지만, “超分節(音)素”라는 긴 이름이 거추장스러워 “韻素”라는 짧은 말로 대신할 경우도 있음을 밝혀 둔다.

超分節音素는 分節音素(즉 segmental phoneme)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처음 Bloomfield(1933)가 子音, 母音과 같은 것은 ‘1次音素(primary phoneme)’, 強勢(stress)와 같은 것은 ‘2次音素(secondary phoneme)’라 하여 모두 音素(phoneme)로 처리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1次音素’는 ‘segmental phoneme’, ‘2次音素’는 ‘suprasegmental phoneme’으로 수정한 것이다.

超分節音(素)은 미국 구조주의 학파에서 나온 용어다. ‘supra-’는 ‘위, 넘어’ 등의 뜻을 가진 접두사로 ‘supra-segmental (phoneme)’은 ‘하나의 分節音(素) 이상의 단위에 부가되는 音(素)’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長短, 高低, 強勢 및 連接(juncture) 패턴, 母音調化, 鼻音化 등도 포함된다.<sup>9)</sup>

超分節音素라는 개념이 나오자, 종래의 記述 방식으로는 鼻母音, 또는 鼻子音을 분절음에 넣어서 가령 [m], [ã]와 같이 분절적으로 기술하던 것을 [ba]<sup>N</sup> 이라고 표시하게 되었다. <sup>N</sup>은 超分節素로서의 鼻音을 나타낸 것으로, 子音 [b]와 모음 [a]를 다 같이 鼻音化하여 [b]를 [m]으로, [a]를 [ã]로 만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sup>10)</sup> 이와 같이 ‘音素’로서 分節音素와 대등한 자격을 획득한 超分節音素는 分節音素는, 이를 音素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도 없는 것은 아니나<sup>11)</sup>, 최근에 나온 自立分節音韻論에서와 같이 분절음을 떠나서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널리 퍼지고 있다.

1.2.2. 突出性 超分節素(Suprasegmentals of Prominence)의 資質들: 超分節音素에는 앞에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길이(音長, duration), 높이(音高, pitch), 세기(強勢, stress)로서 이들을 특별히 ‘prominence’라 부른다.<sup>12)</sup>

9) Crystal(1997:373); Hyman(1975:186).

10) Hyman(1975:186)

11) American structuralist theories, were analysed as phonemes and sequences of such features as morphemes, but not all phonologists analyse these features in emic terms(crystal, 1997:373).

12) Hyman(1975)은 다음과 같이 prominence를 정의하고 있다.

길이와 높이는 이질적인 超分節音素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말의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길이와 높이를 한데 묶어서 다루는 것이 아주 경제적이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長短 현상을 보자. 가령 라틴어나 영어의 長音을 보면, 單語의 어느 음절에나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의 長音은 단어의 첫 음절에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우리말에서는 長音을 가진 단어의 그룹과 長音이 없는 단어의 그룹과는 뚜렷한 구분이 있다. 특히 이것은 單音節語의 경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분절음을 가진 것끼리도 의미의 분화를 가져 온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언어들에는 찾아 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 다른 언어들 of 長音은 單語 안에서의 어느 음절이 가나 짧으나가 중요하지만, 우리말에서는 長音으로 된 單語나 短音으로 된 單語나가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의 장단은 印歐語를 비롯한 다른 언어의 장단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高低의 현상에 우리말은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慶尙, 咸鏡 방언 등에 나타나는 高低 현상은 아프리카 諸言語나 中國語 등 聲調言語의 그것과 같은 점도 많이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高低에 있어서도 우리말은 단어끼리의 대립(contrast)이 중

---

The word prominence is used as a cover term to include stress, tone and duration(see Voorhoeve, 1973). While some linguists only these features are true suprasegmentals, other linguists have analyzed vowel harmony and nasalization suprasegmentally as well. (p.203)

그러나, 音響音聲學, 律格音韻論에서 흔히 말하는 prominence는 위의 문헌들에서 말하는 그것보다는 범위가 좁다.

Prominence(Prominent): A term auditory phonetics to refer to the degree to which a sound syllable stands out from others in its environment. Variations in length, pitch, stress and inherent sonority are all factors which contribute to relative prominence of a unit. An abstract sense the term often used in phonology; for example, in metrical phonology, it refers to the relative weight between constituents in a metrical tree, defined in terms of the values of s('stronger than') and w('weaker than') <Crystal(1997)>

prominence는 '탁월성, 탁월도'(李東華 1996:25,77), '소리의 크기'(이정민, 배영남), '탁립(卓立)'(金敬蘭 1997:136), '卓立'(日本) 등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廣義의 prominence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망설여진다. 여기서는 "prominence"를 "突出音"으로, "suprasegmentals of prominence"를 "突出性 超分節素"로 번역해 보았으나 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요하다. 예를 들면 경남 방언의 1음절어는 高, 中, 低의 세 가지의 높이를 가진 말의 그룹으로 뚜렷이 구별된다는 것은 앞에서 잠깐 보았다. 다음절어의 경우에도 단어(어절) 안에서 어느 음절이 높이나 낮이나 하는 것보다는 그 낱말의 첫 음절 또는 핵심 음절이 高, 中, 低 중 어느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더구나 低調는 서부 諸方言의 長音과 같이 첫 음절에만 온다. 그러므로 우리말의 고저를 다루는 데 아프리카 諸言語를 다루는 방법을 분간없이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참고할 만하다.

아프리카 성조언어들에도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기저 성조가 음운론적인 단위(음절 또는 음절적 단위)에 배당되는 언어들(즉, 음절성조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문법적 단위(형태소, 단어, 또는 성조절tone phrase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배당되는 언어들(즉, 단어성조언어)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가지 언어가 있어서 이들 모두 高(H), 低(L)의 두 성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중 한 언어는 기저 성조가 음절에 배당되어 있다고 하면, 2음절어의 경우, H-H, H-L, L-H, L-L의 네 가지 성조형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두 성조가 단어에 배당된다고 하면, 2음절어의 경우, H-H, L-L의 두 성조형만을 가지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단어 전체가 H와 L 중 어느 하나의 성조를 배당 받게 되는 것이다.<sup>13)</sup>

慶南 방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단음절어에 高(H), 中(M), 低(L)의 3 가지 성조가 있는데, 만약 아프리카 언어들 중 첫째 경우라고 하면, 2음절어에는 H-H, H-M, H-L; M-H, M-M, M-L; L-H, L-M, L-L의 9 가지 성조형이 있어야 하고, 아프리카 언어들 중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H-H, M-M, L-L의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4가지 형이 있다. 전자에 비하면 5가지가 적고, 후자에 비하면 한 가지가 많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우리말의 경우는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지만, 후자

13) Depending on whether underlying tone is assigned to a phonological unit (either syllable or syllabic unit) or a grammatical unit (morphemes, words, or perhaps tone phrases), considerably different tone systems result. Let us say, for instance, that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a certain language, distinguish H and L tone on monosyllabic words. When we look at words which are longer than one syllable, we expect one of two situations. First, if tone is assigned to a phonological unit, we expect for tone patterns on bisyllabic words (H-H, H-L, L-H, L-L), as seen above for Igbo. If, on the other hand, tone is assigned to words, only two tone patterns are expected on bisyllabic words (H-H and L-L). That is, a whole word would take either one tone (H) or the other (L), and this tone would be realized throughout the word, no matter how many syllables that word composed of. (Hyman, 1975:215)



의 경우와 매우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음절 중심의 기술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漢語(中國語)의 경우다. 漢語의 四聲은 어느 위치에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제3성이 둘 겹칠 때는 앞의 것은 제2성으로 변하며, 제2音節 이하에는 輕聲(neutral tone)이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에는 표면 성조는 제2성이지만 기저 성조는 제3성으로 처리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는 기저성조를 따질 수가 없는 별다른 성조라고 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자는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문법적, 어휘적인 배려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거니와, 우리의 경우는 기저음과 표면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는 참고가 될 것이다.

요컨대, 고저의 면에서도 외국의 이론이나 연구 방법을 도입할 때는 우리의 경우와의 異同을 잘 따져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長短과 高低의 밀접한 관계를 보아도 우리말은 세계에 유례가 드문 언어이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西部諸方言의 長音은 慶南方言에서는 低調로 대응된다. 뿐만 아니라, 경북 방언에서는 西部諸方言과 꼭 같은 長短이 있으면서 慶南처럼 高低가 있는데 경북 방언의 고저와 장단은 상호 보완적인 超分節 자질로서 서부 諸方言과 경남 방언과 정확히 대응되고 있다. 다른 언어의 경우를 보면 장단은 분절음의 일부와 같이 기술하여 고저는 초분절음으로 별도로 기술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국어의 여러 방언을 비교 기술하는 데는 장단과 고저를 통합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 방법은 마치 하나의 分節音素가 여러 가지 자질(feature)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다. 예컨대, /u/라는 分節音素는 [+high]라는 자질과 [+back]이라는 자질, 그리고 [+round]라는 자질의 복합으로 기술한다. 국어 超分節素의 경우도 가령 慶北 방언의 경우를 보면, /mal/이라는 음절에 ‘짧고 높은(短高)’ 超分節素가 없으면 ‘馬(horse)’의 뜻을, ‘짧고 보통높이(短中)’의 超分節素가 없으면 ‘草(grass)’의 뜻을, ‘길고 보통높이(長

14. 慶南方言 超分節素 類型은 평면적으로 보면, 네 가지다. 그것을 許雄(1955)에서는 高中, 中高, 中中(高高), 低中으로, 필자는 O-u, o-O, U-U, WU로 표기한다. 그런데 이들은 표면상으로 보면 네 가지이지만, 핵심 韻素를 보면, O형(O-u, o-O), U형(U-U), w형(wU)으로 나눌 수 있다.(金永萬 1991)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언어들 중 후자인 단어성조 언어의 한 변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中)의 超分節素가 없으면 ‘語(speech, words)’의 뜻을 각각 나타내는 단어가 된다.<sup>15)</sup> 이 경우 長短과 高低를 분리해서 기술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간결하다. 즉 ‘馬(horse)’의 경우는 [-Long, +High]라는 資質群, ‘草(grass)’의 경우는 [-Long, -High, -Low]라는 資質群, [+Long, -High, -Low]라는 資質群을 각각 가진 超分節素라고 기술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말이다. 종래에 이러한 방식이 도리어 불편하게 느껴진 이유는 [Long]이니, [High]니 하는 ‘資質’의 명칭이 ‘超分節素’의 이름을 겸하였기 때문이다. 즉 ‘높다’는 ‘자질’을 나타내는 ‘H’로는 ‘길다’, ‘짧다’는 자질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분절음의 경우를 본뜨면 된다. 즉, 분절음의 경우에는 音素(phoneme)를 나타내는 기호, 예컨대 /a/, /u/, /i/ 또는 /p/, /k/, /s/와 같은 기호와 이들의 資質(feature)을 나타내는 기호, 예컨대 /s/의 경우 [+cont, +strid, +del rel]와 같은 것들을 분리하는 것이다. 경북 방언의 경우 필자는 [-Long, +High]라는 資質群을 가진 超分節素를 ‘O’, [-Long, -High, -Low]라는 資質群을 가진 超分節素를 ‘U’, [+Long, -High, -Low]라는 資質群을 가진 超分節素를 ‘W’라 하였다.

이렇게 超分節素를 나타내는 기호와 그 資質을 나타내는 기호를 분리해서 표시하는 체계는 다른 방언과의 비교에서도 경제적이고 간결하여 좋다. 예컨대 慶南의 경우를 보면, 慶北과 같이 세 개의 超分節素가 있는데 그것은 ‘O’, ‘U’, ‘w’가 그것이다. 이중 ‘O’[-Long, +High], ‘U’[-Long, -High, -Low]는 慶北과 같고, ‘w’는 ‘짧고 낮은(短低)’ 資質群을 가진 超分節素다. 따라서 ‘O’, ‘U’는 경북의 것을 그대로 쓰고, ‘W’에 대응하는 ‘w’만 기호를 새로 만들고 자질의 종류는 慶北의 경우에 쓴 “Long, High”를 가지고 앞에 “+”와 “-”만 바꾸어 붙이면 일관성이 있는 기술이 되어 비교에도 편리하다.<sup>16)</sup> 서울을 비롯한 西部諸方言의 경우는 장단만이 변별적이므로, ‘馬(horse)’와 ‘草(grass)’의 경

15) 필자의 이전의 논문들에서는 慶北, 慶南 방언의 音類를 모두 低로 처리하였다. 그것은 경북에서는 音類보다 낮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慶北 초분절소를 중심으로 慶南北을 통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였다. 그 대신 경남방언의 別類는 더 낮은소리(最低)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音類는 모두 慶南北 모두 中으로 慶南의 別類는 低로 바꾸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똑 같은 資質을 가진 초분절소를 가지고 하나는 ‘低’로, 하나는 中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졌고, 둘째로, 더 낮은소리(最低)라는 표현이 마땅하지 않아서이다. 여기 대해서는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할 것이다.

16) 다만 慶南의 경우는 자체 내에서는 “Long”이라는 資質은 변별성이 없다.

우는 모두 [-Long, -High, -Low]라는 資質群을 가진 ‘U’로, ‘語(speech, words)’의 경우는 [+Long, -High, -Low]라는 資質群을 가진 超分節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 방법은 같은 超分節素를 가진 單語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慶北의 경우를 중심으로 보면, ‘O’를 가진 單語群을 “꽃類”, ‘U’를 가진 單語群을 “풀類”, “W”를 가진 單語群을 “별類”라고 하면, 이것은 慶南의 경우에도 그대로 “O : 꽃類”; “U : 풀類”; “w : 별類”의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西部諸方言의 경우는 꽃類와 풀類가 하나로 되고 별類는 그대로 독립되었으며, 咸鏡 방언의 경우는 꽃類는 독립되었으나 풀類와 별類가 하나로 합쳐졌다.

위와 같은 두 가지 표시 방법 내지 기술 방법은 통시적인 면, 즉 중세국어의 超分節音과 현대국어의 超分節音을 비교하는 데, 더욱 편리하다. 꽃類의 단어군에는 “0점”이라는 방점(傍點)이, 풀類의 단어군에는 “1점”이라는 방점이, 별類의 단어군에는 “2점(點)”이라는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상 어느 시기에는 국어는 동일한 세 가지의 초분절소를 가졌던 것이 각 방언으로 분화된 뒤에 세 가지 초분절소를 다 가진 경우도 있지만(慶北, 慶南), 초분절소의 수가 둘로 줄기도 하고(西部, 咸鏡), 그 자질이 장단의 대립만 남은 경우(西部), 高低만 남은 경우(慶南, 咸鏡), 고저와 장단을 다 가진 경우(慶北) 등, 다양하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2.3. 自立分節音韻論(Autosegmental Phonology)과 國語: 超分節素의 記述과 관련해서 종래의 기술 방법에 큰 변혁을 일으킨 이론은 自立分節音韻論이다. 이 이론은 종래의 분석 방법(分節音韻論, segmental phonology)에서 음운론을 형태론적 통사론적 기준에 종속된 분절(또는 자질들의 집합)과 경계(boundary)들의 단선적 배열로 구성된 표상(representation)의 집합(set)으로 나타내는 것과는 반대로 자립분절적 접근은 음운론을 몇 개의 層列(tier)로 구성하고, 매개의 層列은 분절들의 선조적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共時調音(coarticulation)되는가를 지시하는 연결선(association line)에 의해서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超分節素는 독립된 하나의 層列을 이루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 聲調(tone)와 分節素의 관계를 유기적이면서도 명쾌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 이론은 국어의 超分節音 기술에도 이용되었다. 李相億(1978)은 중세국어의 ㅍ(파이, 2점, 上聲)는 한 음절에 두 개의 초분절소(성조소)가 연결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筆者(1986)는 현대국어의 경상도 방언에서 한 음절에 두 개의 超分節素가 없이는 경우와 반대로 두 音節에 하나의 超分節素가 없이는 것을 이 이론에 의하여 설명하였거니와

이 이론은 국어의 초분절음을 분석하는 데 이바지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화(1990)에서는 자립분절음운론에 의거해서 국어의초분절음(성조) 현상을 분석, 설명하려는 본격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우리는 국어의 현상을 분석하는 데 외국 이론을 옮겨 소화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모방에 그치거나, 유행처럼 최신의 이론을 따르는 데 바빠서, 구조주의나 초기 생성이론 중에서도 우리가 힘입어야 할 것도 많은데 그것은 낡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천박한 태도도 고쳐야 할 것이다. 이동화(1996)은 외국의 최신 이론을 깊이 소화하여 우리 것을 만들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필자는 경상도 방언의 초분절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래, 매개의 운소가 高나 中이나, 低나 하는 것에 대해서보다 전체의 구조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여섯 개의 '聲調型을 설정하였고, 매개의 韻素는 그것과 이웃하는 운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방법을 취하였었다(拙稿 1966). 그것은 구조주의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의식하지는 못했었다. 그러한 태도는 拙稿(1972)까지 중세국어와 현대 경상도 방언에 공통되는 3개의 운소형을 찾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 이후 생성음운론이 나오게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된 것은 80년대에 들어서부터였다. 세 개의 운소형을 생성음운론의 표기 방법에 따라  $o_0Ou_0$ ,  $U(U)u_0$ ,  $W(U)u_0$  등과 같이 표시하게 되고, 음운 규칙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심층과 표면의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다. "O→o/\_O"에서, O와 o의 관계는 심층과 표면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이론 자체에 너무 매몰되어 언어 자료의 관찰을 게을리 하는 것은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 있는 고저 장단을 되도록 잘 관찰, 표현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본다. 이론을 애써 도입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필자는 이번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을 많이 입은 것은 20여 년 전에 나온 Hyman(1975)이다. 오늘날의 수준에서는 뒤떨어진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많은 암시를 주었다.

요컨대, 외국의 이론을 도입할 때는 우리 문제를 푸는 데 외국의 경험을 참고한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2. 慶北 方言의 超分節音

## 2.1. 單音節語

2.1.1. 세 單語群(꽃類, 풀類, 별類): 경북 방언의 單音節語는 超分節素의 특징에 따라 꽃類, 풀類, 별類의 세 가지로 뚜렷이 구분된다. 우선 각 '類'의 단어들을 몇 개씩 제시한다.

(1) 경북방언의 초분절소에 따른 세 單語群

- 1) 꽃類 : 꽃, 말(馬), 손(客), 목(項), 배(梨), 밥, 술, 앞, 김, 팔, 모(苗), 뽕, 똥,
- 2) 풀類 : 풀, 말(斗), 손(手), 옷, 배(腹), 배(布), 돌(周年), 바(맛줄), 낮, 밤(夜), 잎(葉)
- 3) 별類 : 별, 말(言), 개(犬), 둘(二), 배(倍), 돈, 돌(石), 발(簾), 밤(栗)

이 단어군 사이의 구분은 언중들에게 너무나 명백하다. 언중들의 소박한 의식으로는 꽃류는 짧고 높으며, 풀類는 짧고 보통높이, 또는 꽃類와 비교하여 낮다고 인식한다. 별類는 길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높이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보통 높이이다. 다만, 경북 동북부 해안 郡들과 강원 三陟 지방에서는 높게 발음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통 높이를 표준으로 삼기로 한다. 그러나, 언어학자는 언중의 의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찰하여 언어를 기술하며, 체계화한다. 이 單語群의 명칭은 그 단어군에 속하는 단어 중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다. 기억하기 쉬운 말들 중에서 고를 뿐 아니라,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풀'은 '草, 糊'의 同音異義語가 있지만 이들이 다행히도 같은 초분절음을 갖고 있기에 선택된 것이다. 만약에 '눈'이나 '말'의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초분절음을 가진 同音異義語라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2.1.2. 세 超分節素(O, U, W)와 자질: 다음에는 이들 세 單語群에 속하는 말들의 초분절소적 특징을 살펴 보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분절소의 자질은 길이(duration, length), 높이(pitch), 세기(stress, loudness)를 각각 "Long, High, Low, Stress" 등과 같이 표시한다.<sup>17)</sup> [Stress]는 지금까지의 연구자들 사이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자질이다. 그러나, 慶南北 방언에서는 상당히 강한 Stress를 감지할 수 있다. 특히 풀류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경상도 이외의 방언 화자에게는 이것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을 보는

17) 초분절 자질의 표시 기호는 어떤 문헌들에서는 [+HIGH]처럼 대문자로 하였는데, 그것은 분절음, 예컨대 모음의 혀의 높이를 표시하기 위하여서는 소문자로 [+high]와 같이 쓰는 것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하였다. (Hyman:1975:220:fn15)

것 같다. 許雄(1955)에서는 이 강세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는 拙稿(1987)에서 이 자질을 도입하였거니와, 특히 兩音節語 이상의 경우에 나오는 “o, u”의 경우(後述)는 O, U에 Stress가 빠짐으로써 형성된 異音입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Prominent”라는 새로운 자질도 하나 더 추가해 보았다. 이 자질은 필자가 이전의 논문(金永萬 1987)에서 ‘Prominence’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도한 바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Prominence’라는 용어는 광의로는 超分節素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즉 고저, 장단, 강약을 통틀어 말할 때 쓰는 용어다. 그러나, 여기서는 狹義로 자질의 하나로 한정해서 쓰기로 해 본 것인 바, 뜻은 역시 突出性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질은 유달리 길거나 유달리 높거나 한 것을 가리킨다.<sup>18)</sup>

먼저 꽃類는 짧고, 높고, 세게 소리난다. 다음으로 풀類는 짧고, 보통높이이고, 세계 소리난다.<sup>19)</sup> 그리고, 별類는 길고, 보통높이이고, 세계 소리난다. 그리고, 길이와 높이는 이 방언에서는 변별적 자질이므로 이 점에서 ‘두드러진’ 꽃류와 별류는 Prominent에서 ‘+’를 부여받고, 이 점에서 중립인 풀류는 ‘-’를 부여받는다.

경북 방언 단음절어에 나타난 超分節素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각 단어군의 超分節素 자질

- 1) 꽃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 2) 풀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 3) 별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뚜렷이 대립되는 超分節素를 얻는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들 초분절소를 나타내는 기호가 필요하다. 이 기호란 가령 분절음에서는 자음으로는 /p/, /t/, /k/; 모음으로는 /a/, /u/, /i/ 등과 같은 것이다. 이들 기호에

18) 이 자질을 도입하게 된 동기는 원래 후술할 바와 같은 /O/와 /o/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양자는 기저에 있어서는 같으나, O가 둘 이상 겹칠 때는 끝에 있는 것만 [O]로 실현되고, 그 앞의 것은 모두 이보다 낮고, 약한, [o]로 실현된다. 양자의 차이를 전자는 [+Prominent], 후자는 [-Prominent]로 하면 드러날 것 같아서 시도해 본 것이다. 용어의 면에서 stress, tone, duration을 총칭하는 ‘Prominence’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형용사형인 ‘Prominent’라고 하였다.

19) ‘세계’는 Stress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꽃류(O)와 풀류(U)는 다 같이 +Stress이지만,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즉, 꽃類는 더 강하고, 풀類는 상대적으로는 약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꽃류가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도 여겨지지만, 느낌으로는 그렇다.

기호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feature) 사이에는 아무런 有緣性이 없다. 예컨대 /i/의 경우 자질은 [-back, +high, -round] 등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sup>20)</sup>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분절소의 기호는, 가령 성조 즉, 높이(tone)의 기호로는 흔히 H, M, L 등을 쓰는데, 이것들은 영어의 High, Middle, Low라는 자질에서 나온 점이 분절음과는 다르다.<sup>21)</sup> 이와 같이 자질과 유연성이 있는 기호를 쓰면 기억에 편리한 점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이런 기호를 쓰지만 우리말의 경우는 특히 경북 방언의 경우, 고저와 장단을 통합적으로 생각하여 기호를 정해야 하므로, 그런 기호를 쓰기가 어렵다. 더구나 L과 같은 기호는 Long의 첫 글자도 되고, Low의 첫 글자도 되기 때문에 더구나 부적당하다.

필자가 특히 H, L과 같은 기호를 쓰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중세국어의 경우 가령 꽃류의 경우 일부에서는 이것을 低調로 보고 일부에서는 高調로 보아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低調說을 못박으려는 의도인지 꽃류 어군을 무조건 L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중세국어와는 무관하게 경상도 방언만을 보아도, 앞에서 본 '미나리아재비'의 경우와 같이 한 쪽에서는 中調로 보고, 한 쪽에서는 高調로 보는 데 임되는 경우는 기호의 사용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필자는 長短과 高低, 또는 強弱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기억을 도울 새로운 기호를 생각한 끝에 중세국어 문헌의 방점을 상징하는 기호를 쓰기로 하였다. 즉, 15세기 문헌에서는 <<訓民正音>>의 규정에 따라 꽃류의 超分節音 기호로서, '0점'을 찍고, 풀류에 대해서는 '1점'을 찍고, 별류에 대해서는 '2점'을 찍었다. 그래서 0점을 찍은 꽃류에 대해서는 '0(零)'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O**로, 1점을 찍은 풀류에 대해서는 '하나(1)'를 상징하여 한 번 구부러진 **U**로, 2점을 찍은 별류에 대해서는 '둘(2)'을 상징하여 두 번 구부러진 **W**로 나타내기로 하였다.<sup>22)</sup>

20) 분절음의 경우도 기호에 쓰이는 글자가 전통적으로 인구어의 철자와 관계가 깊다는 점에서 보면, 有緣性이라 할 수 있다. 자질을 표시하는 말의 철자와는 관계가 없다.

21) 이 경우에도 가령 M의 경우는 자질 기호로는 안 쓰이기도 한다. 즉, M의 경우는 'Mid'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High와 Low의 두 가지만을 써서 M[-High, -Low]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Low 대신에 Mid를 써서 L[-High, -Mid]로 표시하는 수도 있다. (Hyman, 1975:230 참조)

22) 이 기호는 李崇寧(1964)에서 중세국어의 韻素를 방점을 상징하여 O(0점), V(1점), W(2점)로 나타낸 것을 보고, 필자가 경상도 방언 韻素를 나타내는 데 본떠서 사용한 것인데(金永萬 1966), 이 중 'V'가 모음을 상징하는 V(vowel)와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李勝明)에 따라, 'U'로 바꾸었다(金永萬 1986). 한편 정작 중세국어의 超分節素를 위해서는 英字(라틴자)가 아닌, 그리스 字母에서 θ(세타), I(이오타), II(파이)를 써서

## (3) 경북방언 단음절의 超分節素 표

單語群	기호	자질
a. 꽃類	O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b. 풀類	U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c. 별類	W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종전의 많은 연구자들은 O는 '高調', U는 '中調'(또는 低調), W는 '長音'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단음절어만을 가지고 볼 때는 타당하나, 2음절어 이상의 경우는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차차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高, 中, 長'의 전통적인 표현은 경북 방언의 超分節素를 말할 때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무난하다.<sup>23)</sup>

O, U, W는 음운론적 표기로는 /O/, /U/, /W/로, 음성적인 표기로는 [O], [U], [W]로 나타내어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음절어의 경우에는 '꽃'에서는 /O/가 [O]로 실현되고, '풀'에서는 /U/가 [U]로 실현되며, '별'에서는 /W/가 [W]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음절어 이상의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서 變異音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차차 밝혀지게 될 것이다.

2.1.3. 複合韻素의 경우: 위에서 살펴 본 단어에 나타난 운소는 모두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일한 것이었다.<sup>24)</sup> 그런데 1음절어 중에는 복합 운소를 가진 단어도 상당수 있다. 이 중에는 앞쪽은 낮는데 뒤쪽은 높은 경우(先低後高)도 있고, 반대로 앞쪽은 높은데 뒤쪽은 낮은 경우(先高後低)도 있다. 먼저 예들을 보기로 하자.

## (4) 複合韻素를 가진 단어들

- 1) 先低後高 : 무(蒿), 누(姉), 너(너희, 汝等), 저(저희, 彼等)
- 2) 先高後低 : 새(罔), 늪(鱷), 아(童), 가(其兒), 돼(되어)

각각 꽃類, 풀類, 별類의 초분절소를 나타내었다.

23) 여기서 주의할 것은 許雄(1955)를 비롯하여 종래의 논문들에 나오는, 또는 상식적으로 말하는 '高'와 필자가 사용하는 기호 'O'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高'라는 표현 속에는 Preeminent라는 자질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지만, 필자의 'O'에는 이 개념이 들어 있다. 필자의 'O'는 한 단어에 한 번 밖에 안 나오는 것이지만, 다른 연구자들의 '高'는 한 단어에 몇 번이고 나온다. 필자의 'O'와 같은 자격으로 쓰는 '高'는 李東華(1990) 등이 있다.

24) 다만 李東華(1990)에서는 별類의 韻素(W)를 하나의 독립된 운소로 보지 않고, 두 모라로 처리하여, 'L' (U)의 복합 즉, 'LL'로 처리하였다.



이들을 음운론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이들을 하나의 屈曲調(contour)로 보아서 1)은 上昇調(rising tone)로, 2)는 下降調(falling tone)로 처리하는 것이고, 하나는 한 음절에 두 개의 韻素가 없이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전자는 漢語(中國語)의 北京話에서 第2聲을 上昇調, 第4聲을 下降調로 보는 것과 같은 입장이고, 후자는 自立分節音韻論에서 아프리카 등의 여러 언어들을 다룰 때 하나의 음절(또는 모음)에 두 개의 운소가 없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중 어느 쪽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그 언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漢語의 경우를 보면, 예컨대 北京話는 모든 단어의 모든 음절이 기본적으로 제1, 2, 3, 4성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제1성만이 平板調(level tone)이고. 나머지는 모두 굴곡조이다. 그런데 굴곡조를 구성하는 성분, 가령 제3성은 2-1-4로 분석되는데, '2'나 '1'이나 '4' 중 어느 하나도 독립된 성조를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제3성은 세 운소로 분석될 수 없다. 따라서 2-1-4는 음성적으로 분석될 수는 있어도 세 개 운소의 복합으로 볼 수는 없다. 반면에, 다른 아프리카 등 여러 성조언어의 경우에는 高調, 中調, 低調 등이 기본 성조이고 상승조나 하강조는 두 성조의 통합 또는 확산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경북 방언의 복합성조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앞에서 본 O, U, W가 기본을 이루고, (4)에 든 단어를 비롯한 거의 모든 복합운소를 가진 말들은 역사적으로 두 음절이 줄어서 된 것들이다. 예컨대, '무(耨)'는 중세국어의 '무수(0-0)', 현재 경북 방언에서도 일부는 '무시, 무수'라고 하며, '너(汝等), 저(彼等)'은 중세국어와 현대 표준어에서 '너희, 저희'로 되었을 뿐 아니라, 경북에서도 '너거, 저거'라고도 한다. '아(童)'는 '아해, 아이'에서, '돼'는 '되어'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경북 방언의 복합 성조는 원래는 두 개의 음절에 각각 하나의 운소가 얹혀 있던 것이 한 음절이 없어짐으로써 생긴 하나의 부동(floating) 운소<sup>25)</sup>가 다음 그림과 같이 그 옆의 음절에 얹힘으로써 생긴 결과로 설명하는 자립분절음운론적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25) Hyman(1975:225)에는 Igbo語에 소유격을 표시하는 부동 성조 [´](H)가 있어서, 방언에 따라서 어떤 방언(예컨대, Central Igbo)에서는 앞 단어의 마지막 모음에 얹히고, 어떤 방언에서는 뒷 단어의 첫 모음에 얹혔다. 우리말에서는 여기 예로 든 '누(姉)와 새(間)'도 원래, 두 음절이었던 '누의(0-0)', '스시(0-1)'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한 음절이 된 것으로, 운소는 두 가지가 그대로 남아서 한 음절에 얹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Goldsmith(1976)에서 처음으로 "autosegmental phonology"라는 이름으로 저와 같이 처리하게 되었다.

(5) a. 先低後高

$$\begin{array}{c} \text{누(姉)} \\ / \quad \backslash \\ \text{L} \quad \text{H} \end{array}$$

b. 先高後低

$$\begin{array}{c} \text{새(間)} \\ / \quad \backslash \\ \text{H} \quad \text{L} \end{array}$$

다만 이 때의 'L', 'H'라는 잠정적인 기호로 표시된 부분의 음운론적인 처리가 문제가 된다. L로 표시된 부분은 음성적으로 낮고, H로 표시된 부분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종래의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전자를 '中調(또는 低調)'라 하여 靺類의 단어군의 韻素와 같은 운소(즉, /U/)로 처리하고, H로 표시된 부분을 '高調'라 하여, 靺類 단어군에 없이는 것과 동일한 韻素(즉, /O/)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 방식은 音聲的인 것과 音韻的인 것과의 관계를 정당하게 연관 짓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음성적인 관찰에도 문제가 있다. 다음의 2音節語의 項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H'는 /O/로 볼 수 있지만, 'L'로 표시된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U/로 단정할 수 없다.

요컨대, 복합성조의 앞뒤 부분 각자는 비록 分節音에 실려 있지만, 超分節素로서는 완전한 한 韻素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각 운소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兩音節語의 項에서 논하기로 한다.

## 2.2. 兩音節語

2.2.1. 單語郡: 경북방언의 兩音節語(2音節語)는 超分節素로 보아 다음과 같은 4가지 단어군으로 나눌 수 있다.

(6) 兩音節語의 단어군

- 1) 하늘類: 바다, 하늘, 가슴, 방법, 아홉, 그리, 먹고, 잡아, 아직, 꽃이, 꽃잎, 바다
- 2) 나무類: 바람(風), 나무, 산천, 얼굴, 너거, 먹는, 열령(열른), 먼저, 꽃집
- 3) 구름類: 바람(望), 소매, 토지, 스물, 오른(右), 크다, 회다, 본대, 풀이, 밧줄, 밤  
    낮
- 4) 사람類: 사람, 서울, 문제, 임금, 아무, 멀다, 작다, 진작, 별이

이들의 초분절소를 음성적으로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하늘類, 나무類, 구름類는 앞뒤 음절이 모두 짧다. 반면에 사람類는 첫 음절은 길고 둘째 음절은 짧다. 高低의 면을 보면, 하늘類는 앞 음절이 높고 뒷 음절이 낮다, 나무類는 앞 음절이 낮고 뒷 음절이 높다. 구름類는 앞뒤 음절이 모두 보통의 높이고 비슷하다. 사람類도 높이의 면에서는 구름類와 비슷하게 앞 뒤 음절이 비슷하며, 보통 높이이다.

종래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들의 각 음절의 운소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7) 2음절어의 초분절소에 대한 종래의 해석

하	나	구	사
高	中	中	長
中	高	中	中
		(高 高)	(中) <sup>26)</sup>

소박한 관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관점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單音節語의 경우에 있었던 운소 O, U, W를 각각 高, 中, 長(中)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보다 높은 쪽은 高로, 보다 낮은 쪽은 中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견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하늘’의 경우는 높은 앞 음절을 高로 보고, 낮은 뒷 음절은 中으로 보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나무’의 경우는 앞이 낮고 뒤가 높으니, 앞을 中, 뒤를 高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구름의 경우는 앞뒤가 같은 높이니, 中中, 또는 高高로 보는 것도 당연하게 보인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 보면 위와 같은 소박한 관점은 音聲學的(phonetic)으로나, 音韻論的(phonological)으로나 문제가 있다.

2.2.2. 하늘類: ‘하늘’의 경우를 보면, 첫 음절 ‘하-’는 ‘짧고, 높고, 세어서 두드러진다’. 즉 [-Long, +High, +Stress, +Prominent]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3)에서 본 O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즉, /O/라는 운소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음성적으로 [O]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둘째 음절 ‘-늘’의 경우는 좀 다르다. 그것은 앞에서 (7)의 소박한 관점에도 나타나듯이 ‘짧고, 낮다’ 즉, [-Long, -High, -Low]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 점만 보면, ‘中’이라 할 수 있으며, (3)의 U에 해당한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자세히 관찰하면, U와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단음절의 풀類의 그것(즉, /U/)에 비해 ‘약하다’ 즉, U는 [+Stress]인 데 비해 이 소리는 [-Stress]이다. ([-Prominent]라는 점에서는 U와 같다). 이 점은 음성학적인 훈련이 없는 일반 언중에게는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언중에게는 이것을 U와 동일시한다.<sup>27)</sup>

U와 ‘-늘’의 차이를 알기 위하여, 복합어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잎’이라는 단어는

26) 괄호 안의 高高는 許雄(1956)에서 中中은 高高로도 발음된다고 한 것을 나타내고, 하늘類의 ‘하-’는 길이는 長이지만 높이는 ‘中’으로 본다는 것을 말한다.

27)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소리는 기저에 있어서는 U라고 할 수 있다.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풀類에 속하며, 따라서 U라는 초분절소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를 단독으로 발음해 보면, ‘짧고, 낮고,’ 그러면서도 ‘세게’ 발음된다. 그런데 이 ‘잎’이 ‘꽃’과 합하여, ‘꽃잎’이라는 합성어를 이룰 경우 제2음절이 된 ‘-잎’과 단독으로 발음될 때의 잎을 주의깊게 관찰해 보면,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확실히 약하게 발음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꽃잎’의 ‘-잎’을 단독으로 발음할 때의 ‘잎’과 같이 발음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꽃-’과 ‘-잎’ 사이에 약간의 休止(pause)를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꽃#잎#]으로 발음하였을 때는 단독으로 발음하였을 때와 같은 ‘세기(stress)’를 회복한다. 연속으로 발음하였을 때, 즉 [#꽃-잎#]으로 발음하였을 때는 다시 ‘세기(stress)’를 잃어 버린다.

이와 같이 ‘하늘’의 제2음절은 [U]와 비슷하면서도 음성학적으로 다른 초분절음이다. 그러므로 이 소리는 ‘u’라는 기호로 표시해 두기로 한다.

(8) u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여기 [u]는 [U]의 약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超分節音素 /U/는 [U]와 [u]의 두 異音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꽃-잎’과 같은 합성어의 초분절음이다. 우리는 ‘꽃’이 O이고, ‘잎’이 U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두 말이 합했을 때 ‘꽃’은 원래의 O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U는 u로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규칙이 성립한다.

(9) /U/ → [u] / O \_

그리고 단음절어의 複合韻素의 ‘새(間)’의 뒷부분의 낮은 부분도 바로 이 [u]로서 /U/의 異音이다.

2.2.3. 나무類: 나무類에 속하는 ‘바람(風)’의 超分節音을 보기로 하자. 첫 음절 ‘바-’는 둘째 음절 ‘-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낮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2분법적 사고 방식에서 이것을 中調(또는 低調)라고 판단한다.<sup>28)</sup> 뒤의 ‘-람’이 高調임에 틀림없

28) 여기 中調와 低調는 결국 동일한 것이다. 왜냐 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북방언의 풀류의 운소는 경남의 低를 고려하였을 때는 中調로 다루고, 그런 고려가

다면, 이와 뚜렷이 대립되는 이 운소를 中調로 보는 것은 소박한 생각으로는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中調는 필자의 체계(단음절의)로는 [U]에 해당하는데, 이 소리는 [U]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

첫째로 양자는 음성학적으로 차이가 크다. 양자를 자세히 비교해 보기 위해서 풀류에 속하는 단음절어 ‘바(밭줄)’를 발음해 보라. 이 ‘바’는 U로서 ‘바람(風)’의 ‘바-’에 비해 힘 있게(강하게) 그러나 높이에 있어서는 저음으로 소리난다. 반대로 ‘바람(風)’의 ‘바-’는 ‘밭줄’의 바에 비해 약하지만 고음으로 발음된다. ‘바람(風)’의 ‘바-’가 여성적이라면, ‘밭줄’의 ‘바’는 남성적이다. ‘바람(風)’의 ‘바-’가 아이의 소리라면, ‘밭줄’의 ‘바’는 어른의 소리이다. 경상도 방언 화자인 독자들은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주의 깊게 발음하면 확실히 차이를 느낄 것이다. (음악적인 센스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음치에 가까운 필자에게 감지되는데 이것을 구분 못할 분은 없을 것이다.)

요컨대, ‘바람(風)’의 ‘바-’는 높으면서도 약한 소리이다. 따라서 이 운소의 자질은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다섯 개의 자질 가운데, 앞의 개 자질 가운데 앞의 세 가지 자질은 O와 같으나, 뒤의 두 자질 즉 Stress와 Prominent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강세와 높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강세가 약하기 때문에 높이의 면에서도 O에 비해 약한 것은 사실인데 이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음운론적 차원에서 ‘바-’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초분절음은 음성적으로 볼 때 O와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 워낙 약한 소리가기 때문에 높고 강한 O와는 반대로 느껴지고, 따라서 오히려 그 반대인 U와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것은 土着話者에게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본 ‘하늘’의 ‘-늘’이 언중들에게나 학자들에게 다 같이 U라고 직감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나무’의 ‘나-’의 基底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합성어를 ‘꽃집’을 보기로 하자.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꽃’과 ‘집’은 다 같이 O이다. 그런데 이 두 단음절어가 합하여, ‘꽃집’이 되면, 앞의 ‘꽃’은 ‘나무’의 ‘나-’와 똑 같은 소리가 된다. O와 O가 합했을 때는 앞의 O는 언제나 이와 같이 앞의 O는 약화되는 것이다. 다 같이 O인 ‘앞’과 ‘집’이 합성어를 이룬 ‘앞집’과 ‘집앞’을 보면, ‘앞집’의 경우는 ‘앞’이 약화되고, ‘집앞’의 경우는 ‘집’이 약화되는 것은 그 좋은 본보기이다. 또 참고가 되는 사실은 중세국어의 방점이다. ‘나무’류의 방점은 ‘나모

없을 때는 저조로 다루는 것이다.

(0-0)'과 같이 兩音節에 모두 0점이 찍혀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0점은 경상도 방언에서 O에 해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세국어에서는 나무類에 속하는 單語群은 앞뒤가 모두 같은 운소라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사실, 즉 합성어의 경우와 중세국어의 경우를 볼 때도 '나무'의 '나-'의 기저 운소는 O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운소를 소문자 'o'를 써서 [o]로 나타내기로 한다.

- (10) o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u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합성어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 (11) /O/ → [o] / \_ (O + O → oO)

이 규칙과 [o]의 기저가 /O/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日本語의 경우다. 일본어의 東京 방언은 기저에 있어서 모든 단어가 첫 음절부터 高調(H)로 시작되고 이 기저 高調는 pitch fall[高調가 低調(L)로 바뀌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는데, 기저 高調가 2음절 이상 계속될 경우는 첫 음절의 표면음은 언제나 低調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kawa-ga'(江-이)의 경우는 표면 운소는 [L-H-L]이지만 基底는 /H-H-L/이라는 것이다.<sup>29)</sup> 즉, 첫 음절 'ka-'는 표면상으로는 低調(L)이지만, 기저는 高調(H)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H가 H 앞에서 L로 바뀐 것이다. 日本語의 이런 현상은 바로 경북(경남도 마찬가지로) 방언의 (11)의 규칙과 마찬가지다. (11)을 日本語 식으로 바꾼다면, 아마도 "H→L/#\_H"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나무類에 속하는 '나무'의 첫 음절 '나-'의 초분절소는 음성적으로 [o]이고, 기저는 /O/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단음절어로서 복합운소를 가진 '무(藹)'의 앞 부분도 [o]라는 것을 밝혀 둔다.

2.2.4. 구름類: 구름類는 음성적으로 앞뒤 음절이 같은 높이며 길이는 짧다. 음성적 면을 살펴 보면, 보통 높이며, 힘(강세)이 들어간다. 따라서 구름類는 UU로 판단된다.<sup>30)</sup> 종래의 연구자들이 中中이라고 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 그런데 許雄(1955)에서는

29) McCawley(1968:132); Hyman(1975:231-232) 참조.

30) 세밀하게 따지면, 높이는 단음절어의 풀類의 그것보다 약간 높고 힘(stress)은 적게 들어간다. 그러나, 이 차이는 너무 미세하여 따지지 않기로 한다.

中中도 되고 高高도 된다고 하였으나, 高高, 즉 OO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sup>31)</sup> 우선 음성의 실상에 卽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U의 자질과 O의 자질을 비교해 보면, U는 [-High, -Prominent]입에 반하여, O는 [+High, +Prominent]이다. 양자의 차이는 高低에 있어서뿐 아니라, 突出性에서도 차이가 난다. 突出性은 두드러지게 높거나 길거나 또는 낮은 것을 말한다. 음운론적으로 말하여, 돌출음은 한 단어(엄격하게는 音韻句)에 둘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강세언어에서 主強勢와 같아서 경복 방언에서 O와 W는 한 단어에 한 음절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11)에서 보다시피 O가 둘 연속했을 때, 앞의 것은 o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OO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실지로 음성을 관찰하였을 때도 구름類는 세기(stress)는 하지만, 높지(high)는 않다. 單音節語의 풀類와 같은 높이로 발음된다. 이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바람(望)’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말의 두 음절의 높이를 다른 O를 가진 음절과 비교해 보기로 하자. ‘바다(O-u)’의 ‘바-’와 ‘바람(望)’의 ‘바-’를 비교해 보라. 경북 방언 화자 여러분은 전자는 높고, 후자는 낮은 것을 실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바람(風, oO)’의 ‘-람’과 ‘바람(望)’의 ‘-람’을 비교해 보라. 전자가 높은 것을 직감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구름類에 속하는 ‘바람(望)’은 앞뒤 어느 음절도 O가 아니고 모두 U이다.<sup>32)</sup>

2.2.5. 사람類: 사람類의 첫 음절 ‘사-’의 초분절소는 길고 힘있어 단음절어의 ‘별’의 초분절소와 같은 W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둘째 음절 ‘-람’의 경우는 짧고, 보통 높이어서, 단음절어 ‘풀類’의 초분절소 및 양음절어 ‘구름’의 ‘-름’과 비슷하여 U로 인정된다.

1절어에는 그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2) 兩音節語의 超分節音型

### 1) 하늘類: O-u

31) 엄격히 말하여, ‘高’와 ‘O’는 같지 않다. 許雄(1955) 또는 그 견해를 따르는 연구자들의 ‘高’는 한 단어에 몇 번이고 나올 수 있다는 운소이고, 필자의 ‘O’는 한 단어(音韻句)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高는 突出性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는 것이고, 필자의 ‘O’는 돌출음만을 말하는 것이다.

32) 즉, 구름類의 초분절소는 UU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 첫 음절과 둘째 음절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인정된다. 즉, 첫 음절은 힘이 더 들어가고 둘째 음절은 힘이 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미세한 차이이다.

- 2) 나무類: o-O
- 3) 구름類: U-U
- 4) 사람類: W-U

여기 나타난 韻素를 보면 單音節語의 O, U, W 이외에 **o**, **u**라는 새로운 운소가 두 개 추가되었다. 이들 운소는 단독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단음절어에서 알 수 있다. 이들은 兩音節語이상에서 특별한 환경에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음소로 볼 것인가는 문제라 하겠다. 언중의 의식이나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하늘의 'u'에 대해서는 '中調'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U/의 변이음으로 보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o'에 대해서는 /O/의 변이음으로 느끼는 경우가 적다. 그러나 앞에 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필자는 기저음이 /O/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3음절어 이상으로 가면 뚜렷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2音節語에서 왜 4가지 韻素型만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單音節語에 세 가지 韻素가 있었으니까 다음의 9 가지 韻素型이 존재할 수 있다.

(13) O-O[o-O], O-U[O-u], \*O-W, \*U-O, U-U, \*U-W, \*W-O, W-U, \*W-W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반도 안 되는 4 가지 만이 존재하고 반이 넘는 5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앞의 규칙 (9)와 (11)이 보여 주듯이 U는 'u'가 되고, O는 O 앞에서 'o'가 되는 것과 같이, 각 超分節素는 환경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拙稿(1972)에서 상세히 논한 바 있기 간단하게 그 규칙만 소개하기로 한다.

(14) 경북 방언의 초분절소 규칙

- a. W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U가 된다. (W → U / σ<sub>1</sub> \_\_)
- b. O는 U나 W 뒤에서는 U가 된다. (O → U / {U,W} \_\_)

(9), (11), (14)의 규칙에 의하여 (13)의 별표(\*)한 형들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15) a OW→OU→O-u    b UO→UU    c UW→UU    d WO→WU    e WW→WU

이러한 현상들은 경북 방언의 초분절음의 유형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 시사를 주고 있다. 종래 많은 연구자들은 경상도 방언을 변별적인 고저가 있다고 하여 聲調言語라고 하였다. Pike(1948)는 성조언어는 모든 성조소가 모든 위치에서 실현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즉, 성조언어는 漢語처럼 모든 성조소가 모든 어떤 성조나 가령 北京話에서 1, 2, 3, 4聲이 語頭나, 語中이나, 語末이나를 가릴 것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9), (11), (14), (15)에 나타난 바와 같은 많은 제약을 받는 경북 방언은 성조언어라고 할 수는 없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후에 성조언어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져서 Leben(1971) 등에서는 성조언어도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성조가 음운론적 단위에 배당되는 언어와 형태론적 단위에 배당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경북 방언의 운소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1) (3) (5) (12)에서와 같이 경북 방언은 단어에 운소가 배당되어 있기 때문이다.<sup>33)</sup> 다만, Leben이 제시한 Igbo어는 각 단어의 모든 음절에 한 가지 운소만이 배당되는데(가령 어떤 단어는 'LL...'과 같이, 어떤 단어는 'HH...'라는 식으로), 경북 방언 각 단어는 단음절어를 제외하고는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단어 안의 각 음절에는 상이한 운소가 배당된 점이 다르다.

그러나 (12)의 각 단어군의 운소도 자세히 보면, Igbo어와 유사한 면이 있다. Igbo어는 모든 단어는 전체의 음절이 한 가지 운소를 가지고 있어서 운소의 수만큼의 단 어군이 존재한다. 즉 Igbo어는 성조도 둘(H, L)이고, 성조형도 둘(H형과 L형)이다. 그런데 경북 방언은 기저 운소는 셋인데 2음절어의 경우에 韻素型은 넷이고, 음절수가 늘수록 운소형의 수가 늘어 나는 추세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 해서 보면, 경북 방언의 韻素型도 음절수에 상응하고 있다. 그 관점이란 핵심 운소가 무엇이나에 따라 성조형을 재분류하는 것이다. (12)의 네 개 운소형을 보면, 하늘類(Ou)의 핵심운소는 O라는 것은 쉽게 간파할 수 있다. O는 높고 강한 반면, u 는 낮고 약하기 때문이다. 즉, O에는 Prominent가 있다. 다음 나무(o)의 핵심 운소도 O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o 는 O가 약화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구름類(UU)는 핵심을 따질 것도 없이 동일한 운소끼리 모인 것이니까 핵심을 따질 것도 없다. 이것은 Igbo어와 같은 것이다. 이 운소형은 3음절어가 되면 UUu되어 u 가 하나 더 붙는데, 그러면 U가 핵심이 되는 셈이다. 사람類(WE)에서는 W가 핵심이다. W는 돌출 성을 가지고 있고 U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U는 중립적인 초분절소다.

이렇게 보면, 운소형은 결국 세 가지로 깨끗하게 정리된다. 즉, Ou, oO는 O형, UU는 U형, WU는 W형이다. 1음절어의 세 운소가 핵심을 이루는 세 개의 성조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O형은 두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하위 분류할 수 있다. Ou는 첫 음절에

33) 다만 성조언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장단이 끼여 있기 때문이다.

核心韻素가 있으므로 O(1)형, oO는 둘째 음절에 核心韻素가 있으므로 O(2)형이라 하면 된다. 그러나 U형과 W형에는 그런 하위 분류가 필요하다. 이 두 型에는 핵심 운소가 언제나 語頭에 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O는 어느 음절에나 오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 괄호 안의 “1, 2, 3, ...”가 결정된다.

그리고 O형은 고저 액센트(pitch acc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액센트(核)는 어느 음절에 오느냐에 따라 그 단어의 초분절음적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W형은 장단 액센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U형은 액센트가 없다고 해도 좋다. U형은 모든 음절의 基底韻素가 U로 되고<sup>34)</sup> 다른 운소(O, W)의 개입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경북 방언은 고저 액센트(O형)와 장단 액센트(W형) 그리고 無액센트(U형)가 혼합된 특이한 언어(방언)이다.

액센트에는 고정(fixed) 액센트와 자유(free) 액센트가 있는데, 이 점에서도 경북 방언은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O형은 자유 액센트라고 할 수 있고, W형은 고정 액센트라고 할 수 있다.

(16) 核心韻素로 본 兩音節語의 韻素型

- a. O(1)型: Ou 하늘
- O(2)型: oO 나무
- b. U型: UU 구름
- c. W型: WU 사람

2.2.6. 一·二音節語의 통합적 고찰: 우리는 여기서 다시 1音節語와 2音節語를 한데 묶어서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낀다. 앞에서 우리는 1음절어는 超分節音素(韻素)로만 생각하고 超分節音素型(韻素型)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韻素型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즉, 꽃류는 O형, 풀류는 U형, 벌류는 W형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2음절어에서 하늘類는 O(1), 나무類는 O(2)형에 속하듯이 1음절어의 꽃類도 O(1)형에 속한다. 왜냐 하면 ‘꽃’은 한 음절이지만 그것은 첫 음절이기 때문이다. 또 ‘꽃’에 ‘이’라는 토가 붙어 ‘꽃이’가 되었을 때는 Ou가 되어 O(1)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2음절어를 합해서 통일적인 운소형을 제시할 수 있다. 즉,

(17) 1·2音節語 統合 韻素型

- a. O(1)형: 꽃, 하늘

34) 3음절어가 되면, UUu, 4음절어가 되면 UUuu가 되어 제3음절 이하는 u로 약화된다.

- O(2)형: 나무
- b. U형 : 풀, 구름
- c. W형 : 별, 사람

우리는 지금까지 1음절어의 單語群은 “꽃류, 풀류, 별류”라고 부르고, 2음절어는 “하늘류, 나무류, 구름류, 사람류”라고 불렀다. 이제 2음절어도 결국 세 개의 운소형으로 재분류될 수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단어군의 용어도 단일화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1음절어의 꽃類와 2음절어의 ‘하늘, 나무’류는 합하여 ‘꽃’류로, ‘풀, 구름’류는 ‘풀류’로, ‘별, 사람’류도 ‘별’류로 통일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리적이다. 이것은 3음절 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2.3. 多音節語

2.3.1. 3音節語: 2音節語까지만 보면, 3音節語 이상 단어들의 운소형은 예측이 가능하다. 앞에서 우리는 O형은 어느 음절에나 핵심 운소인 O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꽃류에는 O(1), O(2), O(3)의 세 하위 型이 올 수 있고, 풀류와 별류는 1음절이나 2음절이나 한 가지 뿐이므로 3音節語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핵심 운소는 어두에 온다는 것을 알았다. 즉 다음과 같은 운소형이 있다.

- (18) 3音節語의 超分節音素型
- a. O(1)型 : Ouu 머느리  
O(2)型 : oOu 까마구  
O(3)型 : ooO 뽕나무
  - b. U型 : UUu 무지개
  - c. W型 : WUu 사마귀

‘머느리’와 같이 세 가지 O형은 (9), (11), (14a)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U형과 W형에 1·2음절어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실, 즉 U는 제3음절 이하에서는 언제나 약화되어 u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19) /U/ \rightarrow [u] / \sigma_2 \_ \quad (UUU \rightarrow UUu, WUU \rightarrow WUu)$$

즉, U는 그 앞에 음절( $\sigma$ )이 두 개 이상이 오면, u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U의 자절(4b)의 하나인 Stress가 없어서 u로 약화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許雄(1955) 이래로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UUu를 高高中, 곧 \*OOU로 잡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는 두 번 나올 수 없으며, '-OU'는 'Ou'로 바뀐다. U와 u의 차이를 高調와 低調의 차이 즉 O와 U의 차이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Ou에서 u를 U로 생각하는 처지에서는 UUu에서 U와 u의 차이를 O와 U의 차이로 착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도 볼 수 있다. 가령 O의 값을 3, U의 값을 2, u의 값을 1이라고 하면 O와 U의 차이는 '3-2=1'이 되고, U와 u의 차이는 '2-1=1'이 되어 차이 값은 둘 다 '1'이 되니까.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을 잘못 잡은 데 있다. 3과 2를 혼동하고 2와 1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U를 '高'로 하려면 O에는 다른 명칭을 주어야 한다. 예컨대, '特高'라고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은 우리(음운론자)의 목적이 어느 초분절소가 얼마나 높으나만을 따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 정도 높은 것은 O, 2 정도 높은 것은 U, 1 정도 높은 것은 u라고 하는 것은 量이라고 한다면, O는 한 단어에 하나밖에 안 온다든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質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종래의 高低 연구에서는 너무 양적인 것에 치우쳐 온 느낌이 든다. 무지개의 '무지-'의 운소를 '며느리'의 '며-'나, '까마구'의 '-마-'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 질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質의 이니, 量的이니 하는 말은 비유적인 것이고 O와 U의 차이는 구조적인 것이다. 즉 O가 들어가면, 그 단어(또는 형태소, 어절)는 O형, 즉 자유free 고저액센트(pitch accent)를 가진 단어이고, U가 첫 음절에 들어가면, 그 단어는 무액센트 (또는 고정fixed 강세액센트stress accent)를 가진 단어이고, W가 어두에 들어가면 그 단어는 고정 음량(장단)액센트duration accent를 가진 단어이다.

2.3.2. 4音節語: 4음절어의 경우도 예측이 가능하다. U형과 W형은 한 가지씩밖에 없으며, O형은 음절수만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4음절어에는 다음과 같은 초분절소의 형이 있다.

(20) 4音節語의 超分節素型

- a. O(1)형 : Ouuu 먹었다고
- O(2)형 : oOuu 나무에서
- O(3)형 : ooOu 게으르다
- O(4)형 : oooO 오동나무
- b. U형 : UUuu 찾으면서
- c. W형 : WUuu 없던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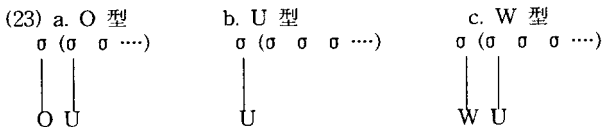
여기에서 필자가 설정한 경북 방언의 초분절음소와 운소의 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3.3. 統合的 超分節音素型: 이상에서 본 각 음절수별 초분절소를 토대로 음절소를 초월한 경북 방언의 초분절소형은 다음과 같이 생성음운론의 표기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 (21) a. O型:  $\sigma_0 O u_0$   
 예) O,  $\sigma O$ , Ou,  $\sigma O u$ , Ouu,  $\sigma \sigma O u u$ ,  $\sigma \sigma \sigma O u$ , .....
- b. U型:  $U(U u_0)$   
 예) U, UU, UU, UUu, UUuu, UUuuu, .....
- c. W型:  $W(U u_0)$   
 예) W, WU, WU, WUu, WUuu, .....

2.3.4. 自立分節音韻論的 超分節素 配當: 경북 방언은 앞에서 본 Leben의 분류에 따른다면, 초분절소가 음절에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 배당되는 유형이다. 단어에 따라 O형, U형, W형 중 어느 하나가 배당되며, 그것은 사전(lexicon)에 명시되어 있다. O형은 그 액센트핵인 O가 몇 번째 음절에 오느냐에 따라, O(1)형, O(2)형, O(3)형, O(4)형, ...O(n)형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것도 사전에 올라 있다. 그리고 각 운소형에 따라 각운소는 각 음절에 배당된다.

이것을  $\sigma$ 가 O의 변이음이고,  $u$ 가 U의 변이음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기저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慶南 方言의 超分節音

#### 3.1. 單音節語와 兩音節語

3.1.1. 超分節素와 그 資質(慶北과의 同異點): 慶南 方言의 超分節音은 慶北 方言의 超分節音 체계와 오직 한 가지 차이점만 있다. 그것은 경북 방언의 超分節素 W가 경남에서는 짧고 낮은  $w$ 가 되는 것뿐이다. 이제  $w$ 를 포함한 경남 방언의 초분절소의 자

질을 다음에 보인다.

(24) 경남 방언의 초분절소의 자질

單語群	기호	자질
a. 꽃類	/O/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b. 풀類	/U/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c. 벌類	/w/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d.	[o]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e.	[u]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w**는 W에 비해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경북의 W는 Long에서 +이고 w는 -인데, 이것은 W는 길고, w는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에 Low에서 W는 -이고 w는 +이다. 이것은 W는 보통높이이고 w는 낮다는 것을 말한다. Stress는 W는 +이고 w는 -인데, 이것은 W는 강한데 w는 약하다는 것을 말한다. Prominent에서는 양쪽이 다 +인데 이것은 경남의 w도 낮고 약하지만 두드러지게 낮은 데서 +를 부여하였다.

3.1.2. 超分節素型: w는 그 모든 행동이 경북의 W와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경북 방언에서 W와 관계되는 것은 경남의 w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경남방언의 超分節素型은 다음과 같다.

(25) 慶南 方言의 超分節素型

- a. O(1)형 : 꽃, 하늘, 머느리  
O(2)형 : 나무, 까마구  
O(3)형 : 뽕나무
- b. U형 : 풀, 구름, 무지개
- c. w형 : 벌, 사람, 사마구

3.2. 多音節語

3.2.1. 3音節語: 3音節語의 경우도 慶北과 慶南은 W가 w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꼭 같다. 유형만 제시한다.

(26) 3音節語의 超分節音素型

- a. O(1)型 : Ouu 머느리  
O(2)型 : oOu 까마구

- O(3)型 : ooO 뽕나무
- b. U型 : UUu 무지개
- c. w型 : wUu 사마귀

3.2.2. 4音節語: 4音節語의 경우도 w만을 제외하면 경북과 같다.

(27) 4音節語의 超分節素型

- a. O(1)형 : Ouuu 먹었다고
- O(2)형 : oOuu 나무에서
- O(3)형 : ooOuu 게으르다
- O(4)형 : oooO 오동나무
- b. U형 : UUuu 찾으면서
- c. w형 : wUuu 없던데요

3.3. 統合的 考察

3.3.1. 統合的 超分節音素型: 다음은 생성음운론의 표기 방식에 따라 경남 방언의 초분절소의 유형을 보인 것이다. 여기서도 경북 방언과 경남 방언은 W와 w의 교체, 다시 말하면, 경북의 장음이 低調로 바뀐 것만이 다르다. 그리고 경북의 長音과 경남의 低調가 다른 운소와의 관계는 너무나 같다.

- (28) a. O型: o<sub>0</sub>Ou<sub>0</sub>  
예) O, oO, Ou, oOu, Ouu, ooOuu, oooOu, .....
- b. U型: U(Uu<sub>0</sub>)  
예) U, UU, UUu, UUuu, UUuuu, .....
- c. w型: w(Uu<sub>0</sub>)  
예) W, WU, WUu, WUuu, WUuuu, .....

3.3.2. 自立分節音韻論의 超分節素 配當: 경북 방언과 마찬가지로 慶南 方言도 Leben의 분류에 따른다면, 초분절소가 음절에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 배당되는 유형이다. 단어에 따라 O형, U형, w형 중 어느 하나가 배당되며, 그것은 사전(lexicon)에 명시되어 있다. O형은 그 액센트핵인 O가 몇 번째 음절에 오느냐에 따라, O(1)형, O(2)형, O(3)형, O(4)형, ...O(n)형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것도 사전에 올라 있다. 그리고 각 운소형에 따라 각운소는 각 음절에 배당된다. (29)는 표현형, (30)은 기저형이다.

- |  |                             |                             |
|--|-----------------------------|-----------------------------|
| (29) a. O 型<br>(··· σ σ) σ (σ σ ···)<br> | b. U 型<br>σ (σ σ σ ···)<br> | c. w 型<br>σ (σ σ σ ···)<br> |
|--|-----------------------------|-----------------------------|

$$\begin{array}{c} | \\ \text{o} \\ | \end{array} \quad \begin{array}{c} | \\ \text{O} \\ | \end{array} \quad \begin{array}{c} | \\ \text{u} \\ | \end{array}$$

$$\begin{array}{c} | \\ \text{U} \\ | \end{array} \quad \begin{array}{c} | \\ \text{U} \\ | \end{array} \quad \begin{array}{c} | \\ \text{u} \\ | \end{array}$$

$$\begin{array}{c} | \\ \text{w} \\ | \end{array} \quad \begin{array}{c} | \\ \text{U} \\ | \end{array} \quad \begin{array}{c} | \\ \text{u} \\ | \end{array}$$

(30) a. O 型

$$\sigma (\sigma \sigma \sigma \dots)$$

$$\begin{array}{c} | \\ \text{O} \\ | \end{array} \quad \begin{array}{c} | \\ \text{U} \\ | \end{array}$$

b. U 型

$$\sigma (\sigma \sigma \sigma \dots)$$

$$\begin{array}{c} | \\ \text{U} \\ | \end{array}$$

c. W 型

$$\sigma (\sigma \sigma \sigma \dots)$$

$$\begin{array}{c} | \\ \text{w} \\ | \end{array} \quad \begin{array}{c} | \\ \text{U} \\ | \end{array}$$

끝으로 경남 방언은 長短에는 관계가 없이 高低에서만 변별적인 초분절소를 가지고 있는데, 순수한 성조언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O형이 자유 고저액센트, U형이 무액센트, w형이 고정 액센트라는 점에서 성조언어라기보다 고저액센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4. 咸鏡方言의 超分節音

### 4.1. 導入

4.1.1. 연구 상황: 지금까지의 함경도 방언 초분절음에 대한 연구는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따라서 아직 초보 단계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쪽에서의 논문은 열 편도 필락말락한 실정이다. 다만, 中國 朝鮮族의 연구로 全學錫(1993)이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보면, 함경 방언에서는 長短의 대립이 거의 없고 고저의 대립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高低는 單音節語에서는 대체로 보아 경북 방언과는 반대인 것으로 보인다. 즉, 咸鏡 方言에서는 1음절어의 경우, 꽃類는 낮고 풀類와 별類는 높아서, 꽃류가 높고, 풀류와 별類가 낮은 慶北, 慶南 方言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절어의 경우도 경북 방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4.1.2. 類型論: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함경도 방언의 초분절음의 유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성조언어라는 견해요, 하나는 고저 액센트라는 견해다. 함경도 방언에 대해 언급한 모든 논문이 이에 대해 명쾌히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방식으로 보아 前者, 즉 성조언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많고, 고저 액센트라는 견해를 말한 이는 Ramsey와 필자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는 이전에는 함경도 방언이 구조적으로 보아 慶北, 慶南 方言의 세 가지 韻素型(O형, U형, W형) 가운데 경북 방언의 O형과 같은 액센트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었다(金永萬, 1974b:1995). 그러나,



그 후 全學錫(1993) 등의 자료를 보면, 함경도 방언은 경북 방언의 O형과는 달리 액센트核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 4.2. 單音節語와 兩音節語

4.2.1. 單語群과 超分節素 資質: 앞에서 우리는 국어의 모든 방언의 초분절음을 다룰 때 單語群으로 꽃類, 풀類, 별類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말하였다. 함경도 방언에 대해서도 이 분류는 유효하다. 왜냐 하면, 우선 함경도 방언에서 단음절어로 보아, 꽃류는 낮고 풀類와 별類는 높기 때문이다. 全學錫(1993)을 보면, 꽃류에 속하는 ‘꽃(꽃), 말(馬), 목(喉), 집’ 등은 “저”(低)로, 풀類에 속하는 ‘밭, 활, 값, 길’ 등과 별류에 속하는 ‘벗, 일(事), 숨, 꿈’ 등은 ‘고’(高)로 되어 있어 구분되기 때문이다. Ramsey는 이들 1음절의 말들은 고저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액센트라는 것은 2음절 이상에서만 나타난다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필자도 함경도의 꽃류와 풀·별류를 비교할 때 전자가 낮고 후자가 높다는 것은 인정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함경 방언의 꽃類는 慶南·慶北의 U와 같고, 풀·별類는 慶南北의 와 같다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속단이다. 이 두 가지 운소가 하는 행동을 살펴 보면, 그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먼저 ‘높다’고 하는 풀·별類의 운소에 대해서 보자. 이 운소의 행동의 특징은 그 뒷 음절이 모두 낮아진다는 것이다. ‘풀, 별’의 뒤에 ‘이, 은, 울’ 등의 조사가 붙어 ‘풀이, 별을’ 등의 2음절어가 되었을 경우 어간 ‘풀-, 별-’은 그대로 높은 음을 유지하나, 뒤의 ‘-이, -을’ 등은 반드시 낮은 소리가 된다. 즉, 경남북의 Ou와 같이 된다. 그러나, 이때의 ‘이, 은, 울’ 등의 조사는 基底 운소가 풀·별類와 같이 높은 소리이다.<sup>35)</sup> 여기서 우리는 함경 방언의 경우는 고조와 고조가 연속되었을 때는 뒤의 고조가 낮아지는 현상(즉, “高+高→高低”)을 발견한다. 慶南北의 경우는 高調와 高調가 부딪혔을 때는 (11)에서 본 바와 같이 앞의 소리가 낮아진다. 즉, 함경 방언의 ‘高調’는 경남북의 高調인 O와는 행동을 달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여기서 우리는 함경 방언의 풀·별類에 얹히는 超分節素는 U라는 기호로 나타내기로 한다.<sup>36)</sup>

35) 그 증거는 이들 조사 앞에 꽃類의 조사가 와서, ‘꽃이, 꽃을, 꽃은’과 같이 되었을 때는 低高로 실현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

36) 이전의 논문에서는 함경 방언의 高調도 경남북과 같이 O로 나타냈다. 그것은 전국의 모든 운소를 통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다 같은 高調라도 경남북

꽃類에 붙는 ‘낮은’ 소리를 보자. 이 말 뒤에 ‘이, 은, 을’ 등의 조사가 붙어 ‘꽃이, 꽃을’ 등의 2음절어가 되었을 경우 ‘-이, -을’은 높은 소리(U)가 되나, 어간 ‘꽃-’은 이보다 낮다. 그러나 그 ‘낮은’ 어간은 慶南北의 U와는 다르다. 慶南北의 U는 (15b.c)에서 보았듯이 그 뒤에 오는 다른 운소를 U(u)로 만든다. 그런데 문체의 운소는 그 뒤에 높은 U를 허용한다. 경남북에서 뒤에 O를 허용하는 운소는 o 밖에 없다. 꽃류에 붙는 이 운소는 경남북의 o와 같다. 全學錫(1993)과 다른 연구자들이 이것을 低로 본 것은 o가 O에 비해 약하고 좀 낮은 특성을 취한 것이므로, 나무랄 것은 없지만, 경남북의 U와 같은 보통 높이의 운소는 아니다. 필자는 이것을 o로 처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sup>37)</sup>

그러므로 함경 방언의 1음절어의 운소는 꽃류에 붙는 o와 풀별類에 붙는 U의 두 가지다. 이들 운소의 자질을 다음에 제시한다.

(31) 함경 방언 1음절어의 운소

單語群	기호
a.꽃類	o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꽃(꽃), 등, 술, 집, 밭
b.풀별類	U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풀, 글, 길; 별, 곰, 돈

경남북에서는 o는 단음절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함경도에서는 존재한다. 그러나 명사에는 통상 토가 붙는데 토는 거의 모두가 U이므로 그 앞에 o가 와서 oU 즉 U(2)를 만들어 안정한 형태를 이룬다. 반면에 U는 뒤에 어떠한 토가 와도 그대로 살아서 토를 u로 만들어 Uu가 된다.

4.2.2. 兩音節語: 2음절어를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32) 함경 방언의 2음절어의 운소형

의 그것과 함경 방언의 그것은 주(23)에서 본 처럼 행동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기호를 쓸 필요를 느꼈다. 마침, 함경 방언의 高調인 풀류는 중세국어 문헌에서 1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를 상징하는 U를 쓰기로 하였다. 경남북의 U와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

37) ‘o’라는 기호를 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함경 방언에서 이 운소를 가진 말은 꽃類이고, 꽃類는 중세국어 문헌에서 0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0을 상징하는 o를 쓴다[주(23) 참조].

- a. 꽃2類 : o(2)형 oo 가을(秋), 나뭇, 다리, 마음, 바람, 얼굴  
 꽃1類 : U(2)형 oU 하늘, 거미, 가시, 겨울, 고기,
- b. 풀별類: U(1)형 Uu (풀類) 구름(雲), 파리, 가물; (별類) 사람, 까치, 임금

이중 o(2)형 곧 oo는 경남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앞뒤 음절에 대해 다 같은 기호 o를 썼으나, 실은 앞의 o보다 뒤의 o가 좀 높다. 필자의 기호 체계에서 o의 연속은 뒤로 갈수록 조금씩 높아진다. 그러나, 그 높이는 U보다는 낮다. o는 U를 향하여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소리이다. 경상도 방언에서는 o가 나타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O가 나타나는데, 함경도 방언에서는 U가 없이 끝나는 수도 있다. U는 액센트 核이다. o만으로 끝나는 것은 대개 명사류로서 그 뒤에는 통상 토가 붙는데 토는 거의 모두가 U이므로 그 앞에 oo가 와서 ooU를 만들어 경남북과 같은 안정된 형태를 이룬다.

그런데 필자가 제시한 운소형에 대하여 Ramsey와 全學錫 사이에는 일치하는 견해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다음 표를 보자.

(33)	金永萬	Ramsey	全學錫
꽃	o	없음	低
풀	U	없음	高
나무	oo	低高(-高) <sup>38)</sup>	低低
하늘	oU	低高(-低)	低高
구름	Uu	高低	高低

1음절어에서 Ramsey가 기술을 하지 않은 것은, 액센트라고 하면 두 음절 이상을 가진 단어에서 어느 한 음절을 높게 또는 세게 발음하는 것을 말한다든 통념에 따라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러나, 함경도 방언은 단음절에서도 고저의 차이가 언중에게도 인식되는 만큼 그런 통념에 구애 없이 기술하는 것이 필자나 全學錫의 태도라 할 것이다. 만약에 표면 음조에서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저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형태소가 왔을 때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1음절어에서 全學錫과 필자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음절어에서 보면, oU, Uu에 대한 것은 견해가 일치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oo형에 대해서는 흥미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Ramsey는 低高라 한 데 대해 全學

38) 괄호 안의 '-高', '-低' 등은 그 다음의 형태소가 高냐 低냐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액센트 핵이 어디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나무(低高)'는 '나무-가'가 되었을 때 低高-高가 되기 때문에 액센트 핵이 없고, '하늘(低高)'은 '하늘-이'가 되었을 때 低高-低가 되기 때문에 둘째 음절에 액센트핵이 있다.

錫은 低低라 하였다.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근본 태도의 차이라 할 것이다. 필자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oo는 앞의 음절보다 뒤의 음절이 약간 높지만 U와 같이 높지는 않다. 그런데 Ramsey는 앞뒤 음절의 차이를 극단화하여 앞은 低로, 뒤는 高로 규정하였다. 이에 반해 全學錫은 앞뒤 음절의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무시하였거나 감지하지 못하여 둘 다 低로 처리한 것이다. 이 차이는 또한 음성학적인 판단과 음운론적인 기술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Ramsey는 어떤 音韻句(phonological phrase)에서 액센트核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느 음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는 함경도 방언의 액센트핵은 高가 低로 바뀌는 지점의 마지막 高라고 보고, 그 음절까지는 첫 음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나무'와 '하늘'은 다 같이 低高이지만, '나무'의 高는 액센트핵이 아니고, '하늘'의 高는 액센트핵이다. 그렇기 때문에 Ramsey의 체계에서는 함경도 방언의 모든 형태소(단어, 어절도)는 제2음절 이하에는 얼마든지 高가 올 수 있다. 예컨대, 5음절의 '비틀거리다'는 低高高低가 되어 高가 3개나 연속이 가능하다. 여기 비해 全學錫은 액센트핵만이 高이고 나머지는 모두 低이다. 따라서 '나무'의 '-무'는 高가 아니고, '하늘'의 '-늘'만 高이다. 한편, '구름'의 경우는 Ramsey에게나 全學錫에게나 다 高인 것은 이것이 액센트 핵이기 때문이다.<sup>39)</sup>

필자는 함경도 방언에서는 액센트핵을 U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필자가 U로 한 것은 다른 두 학자에게도 언제나 高이다. 특히 全學錫의 高와 필자의 U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는 필자의 기술 태도는 全學錫의 그것과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러나 필자가 설정한 운소 체계는 전학석과는 다르다. 전학석의 '低'에 대응하는 필자의 운소는 o와 u의 두 가지가 있다. 필자의 o는 U(高)의 앞에 오는 低이고, u는 O(高)의 뒤에 오는 것이다. 둘 다 O(高)보다 낮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低)로 통일한 全學錫의 체계가 일반인들에게는 더 호감이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자의 처지에서는 언어의 객관적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이상이다. 그러면, o와 u, 곧 액센트핵(U) 앞에 오는 '低'와 뒤에 오는 '低'는 어떻게 다른가? 앞에 오는 것은 o는 U를 향하여 계단식으로 높아 가는

39) 全學錫과 Ramsey는 함경 방언 초분절음을 다루는 태도에서 흥미있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全學錫은 여러 음절 가운데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으냐를 판별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는 액센트핵에 해당하는 운소는 高로, 그 앞뒤의 낮은 운소들은 무조건 低로 처리하였다. Ramsey는 액센트라는 관점에서 액센트핵을 찾아내는 데 관심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Ramsey는 음성적으로 '高'에서 '低'로 떨어지는 지점이 어디 있는가가 관심의 대상이다. 全學錫은 음성학적인 쪽에 기울어지고 있고, Ramsey는 음운론적인 해석에 기울어져 있다.

소리이다.<sup>40)</sup> Ramsey는 이 운소들이 첫 음절에 왔을 때는 低로 둘째 음절 이하에 왔을 때는 高로 하였는데, 이것이 o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고사리, 바람이’는 전학식은 低低高로, Ramsey는 低高高로 판단하여, 둘째 음절에 대해 低와 高로 양자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全學錫(1993:18,100)의 실험 결과로 보아도 높이의 數值(hertz)가 첫 음절과 끝 음절의 중간에 들어 있다.<sup>41)</sup> 반대로 u는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운소다. u에 대해서는 Ramsey도 아무리 여러 개 겹쳐도 모두 低로 하여 全學錫과 같다.

### 4.3. 多音節語

4.3.1. 3音節語: 3음절어 이상은 예견할 있다. 함경 방언의 3음절어의 운소형은 다음과 같다.

- (34) O(3)형 : ooo (꽃3류) 오르는, 바르는, 짜르는, 기르는, 흐르는,  
 O(3)형: ooU (꽃2류) 고사리, 광주리, 막대기, 미나리, 비둘기  
 O(2)형: oUu (꽃1류) 며느리, 아지미, 아흐레, 모른다, 가지고  
 O(1)형: Uuu (풀류) 도깨비, 무지개, 기지개, 가늘다; (별류) 기지개, 더럽다, 모신다, 못한다

4.3.2. 4音節語: 4음절어의 운소형도 예견할 수 있다.

(35) 함경 방언 4음절어의 超分節素型 (예는 全學錫1993:240-241에서 취함)

- o(4)형 : oooo (꽃4류) 가뜩하던, 축축하던  
 o(3)형 : oooU (꽃3류) 거느리다, 거리끼다  
 O(3)형: ooUu (꽃2류) 나타나다, 짐작하다  
 O(2)형: oUuu (꽃1류) 갈라지다, 견어잡다  
 O(1)형: Uuuu (풀류) 어지럽다, 주정하다  
 (별류) 모자라다, 얻어먹다

40) 여기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소리라 함은 o가 여러 개 겹쳤을 때 앞 음절로 갈수록 낮아지고 뒷 음절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뜻이다. 졸고(1974b)에서는 이것(그때는 ㅅ라는 기호를 썼다)을 ‘상승조’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그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 일 반으로 널리 쓰이는 ‘상승조’는 全學錫(1993:22-25)에서 지적해 주었듯이 漢語의 上聲처럼 시간적으로도 길고, 앞과 뒤가 뚜렷한 고저의 격차를 가진 것이다. (경북 방언에서도 앞의 (6a)의 ‘누(姉)’와 같은 것이 진정한 상승조이다.) 다만, 그 글에서도 이것을 “낮고 끝이 올라가는 불안한 소리”라고 한 것은 o의 이러한 특징을 극히 불완전하게나마 반영하였다고 생각한다.

41) 會寧의 경우를 보면, ‘고사리(147-175-215)’, ‘바람이(155-186-204)’.

4.4. 統合的 考察

4.4.1. 超分節素型: 함경도 방언의 운소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6) 咸鏡 방언의 超分節素型

- a. o형 : o<sub>1</sub>
- b. U형 : o<sub>0</sub>Uu<sub>0</sub>

o형에서 o<sub>1</sub>은 o가 하나 이상인 것을 말한다. 全學錫(1993)에서는 ‘低’만으로 된 운소형을 말한다. Ramsey 식으로는 첫 음절이 低이고 제2음절 이하는 모두 高인 것을 말한다. o형은 액센트핵(O)이 없는 운소형이다. 이에 대하여 U형은 어느 한 음절에 액센트핵(O)이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o<sub>0</sub>은 U 앞에 o가 0개 이상 올 수 있음을 말한다. 즉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이상 더 많을 수도 있음을 말한다. u<sub>0</sub>은 U 뒤에 u가 0개 이상 올 수 있음을 말한다. 이 운소형은 全學錫 식으로 말하면, 高가 하나 있고 그 앞뒤에 低가 제한 없이 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Ramsey 식으로 말하면, 액센트핵인 高가 하나 있고 다음에는 低가 하나 이상 와야 하는데, 高 앞에 한 개의 低와 핵음절이 아닌 高의 연속이 올 수 있다. 이제 필자의 체계를 全學錫 식, Ramsey 식으로 각각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37)	金永萬	全學錫 식	Ramsey 식
a. o형 :	o <sub>1</sub>	低 <sub>1</sub>	低高 <sub>0</sub>
b. U형 :	o <sub>0</sub> Uu <sub>0</sub>	低 <sub>0</sub> 高低 <sub>0</sub>	(低高 <sub>0</sub> )高(低 <sub>1</sub> )

함경 방언의 두 운소형 중 o형은 좀 불안정하다. 그것은 어휘적으로 보아도 명사류가 많은데 명사는 조사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의 운소는 거의가 U, 즉 액센트핵이 되므로, 결국은 O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반면에 동사류는 어미가 거의 U(핵)이므로 동사는 어미 없이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U형이 많게 된 것이고 따라서 안정성이 있다.

4.4.2. 超分節素의 音韻 規則: 끝으로 함경 방언에는 慶南北과는 반대로 보이는 음운 규칙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 가려 한다. 그것은 U와 U가 부딪혔을 때, 뒤에 있는 U가 u로 변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全學錫(1993:229)에 보면, ‘코물, 눈물, 꿀벌’ 등은 ‘高低’(Uu)로 소리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합성어로서 앞뒤의 음절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高’(U)인 것이다. 그런데 뒤의 高 앞의 高에 의하여 低(u)로 변한 것

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7)  $U \rightarrow u / U \_ (U+U \rightarrow Uu)$

즉 U는 그 앞에 U가 오면 u로 변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U는 뒤에 있는 U를 u로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慶北(慶南도 같다) 방언의 규칙 (11), 끝 U는 U 앞에서 o로 변한다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경북에서는 두 개의 높은 소리가 부딪혔을 때는 앞의 소리가 낮아지는데 咸鏡道에서는 뒤의 소리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 5. 西部 諸方言(서울중심)의 超分節音

### 5.1. 單語群과 長短 資質

5.1.1. 單語群: 이 지역, 특히 서울 지방에는 적어도 16세기까지는 꽃類, 풀類, 별類의 변별이 있었다는 것은 문헌이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꽃類와 풀類는 통합되어 짧은 소리로 되고, 長音인 별類와 대립된다.

(38) 單音節語의 單語群

- a. 꽃·풀類 : (꽃류) 꽃, 말(馬), 손(客), 목(頸), 배(梨), 밭  
(풀류) 풀, 말(斗), 손(手), 물(水), 배(腹), 붓
- b. 별類 : 별, 말(言), 개(犬), 둘(二), 배(倍), 돈

5.1.2. 超分節素와 資質: 이 방언권에 변별적인 長音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졌기 때문에 새로 거론할 여지도 없이 모든 국어 사전이 잘 보여 주고 있다. 단음절어에서 이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꽃·풀類는 짧고 보통의 높이로 발음되고, 별類는 길게 발음된다는 것은 언중들이나 관찰자에게 쉽게 감지된다. 그리고 長音은 세게 발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李炫馥, 1973, 1974). 별類의 超分節素는 경북 방언과 일치한 長音을 갖고 있기 때문에 W라는 기호를 부여할 수 있고, 꽃·풀類는 짧고 특별히 높거나 낮지 않기 때문에 U라는 기호를 부여하기로 하면, 다음과 같은 자질 표가 성립할 수 있겠다.

(39) 西部 諸方言의 超分節素 자질 표

- a. (꽃·풀類): U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b. (별類) : W [+Long, -High, -Low, +Stress, +Prominent]

여기서 고저는 잉여 자질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은 것이지만, 다른 방언과의 비교를 위해 첨가해 두었다. 그리고 Stress와 Prominent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도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5.1.3. 多音節語: 2音節語 이상에서는 別類에 속하는 말에도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長音, W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이것은 合成語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둘째(제 2)’에서는 ‘-둘-’이 長音으로 실현되나, ‘열둘(12)’에서 ‘-둘’이 短音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경북 방언과 마찬가지로, (14a), (15a,c,e)로 정식화되었거니와, 여기 다시 정리해 둔다.

(40)  $W \rightarrow U / \sigma_1 \_ (UW \rightarrow UU)$

그 결과로 이 방언권에서는 2음절어 이상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超分節素型이 있다.

(41) a. U型 :  $U_1 (U, UU, UUU, UUUU, \dots)$   
 b. W형 :  $WU_0 (W, WU, WUU, WUUU, \dots)$

## 5.2. 類型的 特徵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서울말의 장음을 다른 언어(예컨대 라틴어)의 장음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는 일이 있는데, 우리말의 장음은, 가령 라틴어의 경우처럼 단어의 어느 음절에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단어의 첫머리에 온다는 특성이 있다. 서부 제방언의 長音은 Prominent를 가지고 있어서 액센트가 된다. 그 액센트는 고정 액센트(fixed accent)로서, 서부 제방언의 모든 단어(어휘)는 고정 액센트인 장음이 있는 單語群과 그것이 없는 단어군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본 경북 방언이, 高低 액센트가 있는 O형 단어군(꽃류)과, 장음 액센트가 있는 W형 단어군(별類)과, 그리고 그런 두 가지가 없는(어찌면 강세 액센트가 있는) U형 단어군(풀類)의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 국어 초분절음의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서부 제방언의 別類 單語群은 경북 방언과 같이 W형 초분절음을 갖는 것이고, 꽃풀類 單語群은 U형 초분절음을 갖는 것이다.



## 6. 結論

### 6.1. 國語 超分節音의 特性

6.1.1. 單語群: 이상에서 우리는 현대 국어 각 방언의 超分節音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국어 방언에는 長短 또는 高低가 변별적인 곳이 많았고 때로는 強勢가 개입하는 현상이 있었다. 장단, 고저, 강세는 세계 여러 언어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그 존재 방식은 언어마다 다르다. 국어의 방언 중에는 西部諸方言과 같이 장단이 변별적인 방언도 있고 東部諸方言<sup>42)</sup>과 같이 高低가 변별적인 방언도 있고 慶北 방언과 같이 高低와 長短이 다 변별적인 방언도 있다. 이들 초분절음이 존재하는 양식은 공통적으로 語彙的이라는 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어 각 방언의 전체 어휘는 超分節의 特性에 따라 꽃類, 풀類, 別類로 나누어 볼 수 있어서 그것은 語彙部(辭典, lexicon)에 입력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西部諸方言에서는 長音系(W型) 單語群과 短音系(U型) 單語群이 나뉘어지고; 慶北 방언에서는 長音액센트系(W型) 單語群과 高低액센트系(O型) 單語群, 및 無액센트系 또는 強勢액센트系 (U型) 單語群이 나뉘어지고; 慶南 방언에서는 低調액센트系(w型) 單語群과 高調액센트系(O型) 單語群, 및 無액센트系 또는 強勢액센트系 (U型) 單語群이 나뉘어지고; 咸鏡 방언에서는 無액센트系(o型) 單語群과 有액센트系(U型) 單語群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이 중에서 慶南北과 咸鏡 방언의 高低(高調)액센트系 單語群은 액센트의 위치가 몇 번째 음절이냐에 따라서도 갈라진다.

꽃類, 풀類, 別類는 이들 單語群을 구분하는 공통적 기본 잣대가 됨은 이미 여러 번 보아 왔다.

레벤(Leben, William R.)은 聲調言語를 (1) 聲調가 음운론적인 단위(음절 등)에 배당(assign)되는 유형과, (2) 문법적인 단위(단어, 형태소 등)에 배당되는 유형으로 나누었다. 국어는 聲調言語는 아니지만, 中世國語와 東部諸方言은 聲調言語의 要素를 많이 품고 있는데; 레벤의 말을 초분절음 일반에 적용한다면, 後者 즉 超分節素(실은 그 型)가 단어에 배당된 언어라 할 것이다.

6.1.2. 複合의 超分節素型: 국어 여러 방언의 초분절음의 특징은 여러 초분절적 요소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경북 방언에는 고저와 장단이 공존하고, 경남 방언에는 고조 액센

42) 慶南北, 江原 東部, 咸鏡 方言.

트와 저조엑센트가 공존한다. 동시에 경남북 방언에는 자유 엑센트와 고정 엑센트가 공존한다. 즉 O형은 자유 엑센트이며, W(w)형은 고정 엑센트이다. 함경 방언은 有엑센트(U형)와 無엑센트(o)가 공존하고 있다. 이 점이 국어 엑센트의 특징이다. 서부 제방언은 長音의 고정 엑센트이다. 이렇게 복잡한 국어 초분절음의 다양성은 국어의 초분절음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국어의 계통론이 아직도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과 관계가 있는지도 모른다.

## 6.2. 뒷말

6.2.1. 반성: 이상으로 국어 초분절음의 공시적 연구라는 이름 아래 慶北, 慶南, 咸鏡, 西部諸方言의 네 방언권의 超分節音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중 咸鏡 방언은 현지 조사를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과거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많고, 서부제방언은 워낙 범위를 넓게 잡은 데다가, 역시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서울을 주된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전남 지방에는 무안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長音은 동시에 높게 소리나는 현상이 뚜렷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다.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부충할 생각이다.

연구 방법은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실음의 관찰에 힘을 기울이고 거기에 따른 사색을 깊이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외국의 이론은 그들의 연구 경험에서 배우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최신의 외국 이론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오는 독단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학 여러분의 따가운 비판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6.2.2. 전망: 초분절음의 연구는 외국 특히 미국의 언어학계에서는 음운론 분야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는 느낌이다. 국내에서도 이 방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뜻 같지 못한 탓인지 별로 활기를 띠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어떤이들은 이 방면의 연구는 고저가 있는 방언권에서 성장한 사람이라야 옹계 할 수 있다고 주저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歐美의 학자들이 아프리카의 성조언어를 연구하는 것을 보아도 반드시 토착화자라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는 좀더 활발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방면 연구는 방언 연구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남북이 상호 교류하면서 같이 연구할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參 考 文 獻

- 金敬蘭 1994. 고대 및 중세 영어에서의 장단모음화에 대하여. 人文研究 제16집 제1호pp 101-112.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 金敬蘭(1997) 음운론. 한신문화사.
- 金武植(1992) 경북 방언 超分節素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國語學 22. 國語學會.
- 金芳漢 1977. 韓國語 語頭 h-의 起源 및 語頭子音群과 傍點. 언어학 2.
- 1983. 韓國語의 系統. 民音社.
- 金永萬 1966a. 慶南方言의 聲調研究. 국어국문학 31.
- 1966b. 방점과 현대 국어 성조의 비교 : 경북 방언을 중심으로.
- 1967a. 이조 전기 한자음의 운율(I II) 한글 139-140.
- 1967b. 傍點의 本質에 대한 考察 : “뫓노폰소리”는 high tone인가? 국어국문학 36.
- 1972. 고금 성조 비교 재론 : 다음절어의 유형과 비교 공식. 한글 149.
- 1974a. 방점 표기의 원칙과 성조 변화. 국어국문학 64.
- 1974b. 국어 운율의 본질과 변천 : 서울·경북·경남·함경·전라 방언의 비교. 국어국문학 65-66.
- 1975. 중세국어의 accent와 그 읽는 법. 景福 36.
- 1976. 聲調의 文法的 機能과 音素, 韻素의 관계에 대한 考察. 語文學 34.
- 1986. 國語 韻律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嶺南語文學 13.
- 1987. 國語超分節音素의 史的研究.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학원.
- 1989. 형태소 {ㄴ}의 기저 운율에 대하여. 二靜鄭然榮先生回甲紀念論叢. 탑출판사.
- 1990. 15세기 국어의 운율 규칙 연구: 16세기와 관련하여. 학술진흥재단 수혜논문. 語文學 51.
- 1990. 쌍형 어간과 {으,으)의 기저 운소. 韓國語學新研究.
- 1991. 國語 超分節音素의 史的研究. 翰信文化社.
- 1992. 韻素論(연구사). 國語學研究百年史[I], 일조각.
- (Kim, Youngman). 1995. A Study of Korean Suprasegmental Phonology. 二重言語學會誌 12.
- 金完鎭 1977. 中世國語 聲調의 研究. 塔出版社.

- 김주원 1991a. 경상도 방언의 高調의 本質과 중세국어 聲調와의 대응에 대하여. 언어학 13.  
 —— 1991b. 경상도 방언의 성조 기술 방법 : 표기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시론. 語學  
 研究 제27권 제3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 金次均 1973. 국어 성조론과 서부 경남 방언의 성조. 한글 152.  
 —— 1977.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南慶祐 1953. 傍點攷 국어국문학 7.  
 —— 1953-4. 長短音攷 국어국문학 12-13.  
 —— 1964. 東國正韻式 漢字音 聲調의 研究. 中央大論文集 9.  
 —— 1968. 韓國에서의 漢字音聲調 變遷研究.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文孝根 1962. 大邱方言의 高低長短. 人文科學(延世大) 7.  
 —— 1969. 영동방언의 운율적 자질에 관한 연구. 東方學志 22.  
 —— 1974. 韓國語聲調의 分析的 研究. 世宗出版社.
- 朴炳采 1971b. 古代國語의 研究(音韻篇). 高麗大 出版部.  
 —— 1980. 「言文」에 관한 研究:聲調를 中心으로. 民族文化研究所(高麗大) 15.
- 徐在克 1968. 慶北方言圈의 漢字語聲調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 1969. 漢字語聲調의 再構試圖. 啓明大 어문논집 1.
- 李基文 1971. 訓蒙字會研究. 韓國文化研究所(서울대).
- 李東華 1990. 慶北方言 聲調의 自立分節音韻論의 研究. 영남대 대학원 박사 논문.  
 —— 1996. 국어 음운론: 최근 이론 중심. 문창사.
- 李相億 1978. Middle Korean tonology. 美國일리노이대 박사학위 논문.  
 —— 1979. 聲調와 音長. 語學研究 15-2.
- 李崇寧 1955. 악센트論. 한글 110, 111, 113.  
 —— 1959. 現代 서울말의 accent의 考察. 特히 Condition phonetique와 accent의 關  
 係를 主로 하여. 서울大 論文集 9.  
 —— 1964. 十五世紀의 活用に 있어서의 聲調의 考察. 亞細亞研究 7-2(1966 國語  
 學論叢 再錄).  
 —— 1968. 聲調體系의 崩壞過程의 考察. 震壇學報 31.
- 李炫稷 1973. 現代韓國語의 accent. 서울大 文理大學報 19.  
 —— 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語學研究 10-2.  
 —— 1976. 한국어 단음절어의 억양연구. 언어학 1. 한국언어학회.

- 全學錫 1993. 함경도 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회령, 경성, 함주 지방말의 음조를 중심으로. 대학사.
- 張泰鎮 1958. 傍點의 機能: 15세기 音素設定을 위한 試圖. 語文學 3.  
 —— 1963. 방점의 연구: 특히 형태론적 과정에서. 한글 132.
- 鄭然燾 1963. 十五世紀 活用語幹의 聲調에 대하여. 忠南大 論文集 3.  
 —— 1976.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 一潮閣.  
 —— 1977. 慶尙道方言聲調研究. 塔出版社.
- 鄭榮浩 1993. 南海島 方言의 聲調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鄭寅燮 1965. 우리말 액센트는 고저액센트다. 중앙대 논문집 10.
- 周時經 1908. 國語文典音學(朝鮮語文典音學).
- 池錫永 1906. 言文. 廣學書舖. 서울. (影印本)  
 —— 1909. 字典釋要. 滙東書館. 서울. (1913 增補)
- 千詩權 1958. 方言에 있어서의 上聲攷. 慶北大論文集 2.
- 崔鉉培 1937. 한글갈. 正音社.  
 —— 1942. 우리말본. 正音社.
- 許 雄 1954. 慶尙道方言의 聲調. 崔鉉培先生還甲紀念論文集.  
 —— 1955. 傍點研究. 東方學志 2.  
 —— 1963. 中世國語研究. 正音社.
- 方孝岳 1979. 漢語語音史概要. 商務印書館. 香港.
- 吳眉孫 1982. 四聲說. 語言文字研究專輯(上). (中華文史論叢增刊)
- 王 力 1972. 漢語音韻. 中華書局. 香港.
- 王士元 1983. 關於聲調語言. 語言學論叢 11. pp.98-103. 商務印書館.
- 張世祿 1965. 中國韻學史(上·下). 商務印書館.
- 丁邦新 1975. 平仄新考. 中央歷史語言研究所集刊 47-1. 臺北.
- 管野裕臣 1972. 朝鮮慶尙道方言アクセント關係の諸問題. アジアアフリカ語學院紀要  
 No 3. 東京外大
- 金田一春彦 1958. 日本語アクセント辭典. 三省堂. 東京.
- 大江孝男 1976. 大邱方言におけるアクセントの型と長母音. 言語研究 69. 東京.

- 梅田博之 1961. 慶尙北道漆谷方言(朝鮮語)のアクセント.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文集.  
—— 1972. 朝鮮語靈山方言のアクセント. 現代言語學 3.
- 服部四郎 1968. 朝鮮語のアクセント・モラ・音節. ことばの宇宙 3-5. 東京.
- 櫻井茂治 1975. 古代國語アクセント史論考(論文集). 東京: 櫻楓社.
- 原口庄輔 → Haraguchi
- 平山久雄 1986. 上古漢語の聲調調値. 伊藤漱平教授退官記念中國學論集.
- 平山輝男 1960. 全國アクセント辭典. 東京堂.
- 河野六郎 1945. 朝鮮方言學試攷. 東京書籍. 서울.  
—— 1951. 朝鮮古文獻の聲點に就いて研究. 朝鮮學報 1.  
—— 1964-5. 朝鮮漢字音の研究. 朝鮮學報 31-35.
- Burrow, T. 1973. Sanskrit Lsnguage. pp.112-117. Faber & Faber.
- Chomsky, N. & Halle, M.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 Row. New York.
- Crystal, David 1976. Prosodic systems and intonation in English. Cambridge Univ. Press.  
—— 1997.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4th edition). Blackwell. Oxford, UK.
- Gddsmith, John A. 1976a. Autosegmental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Reproduced by Indiana Univ. Linguistics club.  
—— 1990 The autosegmental & mentrical phonology. Basil Blackwell, Massachusetts, U.S.A.
- Haraguchi, Shosuke 1977. The tone pattern of Japanese : an autosegmental phonology of tonology. Tokyo : Kaitakusha(開拓社).
- Hayata, Teruhiro 1974. Accent in Korean:synchronic and diachronic studies. 言語研究 66.  
—— 1976. On long vowels in Kyeongsang dialects of Korean. 言語研究 69.
- Hyman, Larry M. 1975. Phonology : theory and analysis.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Jakobson, Roman & Waugh, Linda 1979. Thesound shape of languaga. Indiana Univ. Press.

- Kahn, D. 1976. Syllble-based Generalizations in English Phonology.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Kim, Youngman. 1995. A Study of Korean Suprasegmental Phonology. <二重言語學會誌> 12輯
- Kiparsky, P. 1979. Metrical structure assignment is cyclic. Linguistic Inquiry 10 : 421-441.
- Ladeforged, P. 1982. A course in phonetics 2nd edition. Harcourt Brace Jovanovich. New York.
- Leben, William R. 1971 "Suprasegmental and segmesntal representation of tone."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Supplemental 2.
- Lehist, Ilse(editor) 1967. Readings in acoustic phonetics. M.I.T. Press.  
 ——— 1970. Suprasegmentals. M.I.T. Press.
- Macdonell, Arthur Antony. 1954. A practical Sanskrit dictionary. Oxford Univ. Press.
- Matisoff, James A. 1973 "Tonogenesis in Southwest Asia." In Hyman, 1973c, 71-95.
- Pike, Kenneth L. 1948. Tone languages,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 Ramsey, S. R. 1973. 咸鏡. 慶尙 兩方言의 액센트 研究. 國語學2.  
 ——— 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塔出版社.
- Sampson, Geoffrey. 1969. "A note on Wang's 'phonological features of tone'."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35.62-66.
- Voorhoeve, Jan. 1973. "Safwa as a restricted tone system."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4.1-22.
- Wang, William S-Y. (1967). "The phonological features of tone."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33.93-105.